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愼慶淑

대한매일신보 시사평론詩 연구

- *The Study of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Si-sa-pyung-non-si) in The Korea Daily News -

2001年8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孫 維 卿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愼慶淑

대한매일신보 시사평론詩 연구

- *The Study of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Si-sa-pyung-non-si) in The Korea Daily News -

위 論文을 古典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8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孫 維 卿

孫維卿의 古典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2. 대상 자료 및 연구 방법	2
II. 시사평론란 계몽의 특수성	6
1. 소통구조에 따른 창작의 주체와 독자층	6
2. 비판의 대상과 내용의 특징	11
3. 계몽의 특수성과 한계	22
III. 형식적 특성과 그 의미	26
1. 시사평론란 성격의 변모 양상.....	26
1) 모색기	27
2) 문예 기법 활용기 (실험기 I)	40
3) 서사 단락 활용기 (안정기)	45
4) 신문 지면 활용기 (실험기 II)	51
5) 쇠퇴기	56
2. 시사평론詩의 형식적 특성과 작품의 유형분류	59
3. 매체화에 따른 잡가와 유사성	78
1) 시사평론란 양식화 과정의 특성	78
2) 잡가와 시사평론詩 양식의 유사성	80
IV. 시사평론詩의 문학사적 의미	87
V. 결론	89
□ 參考文獻	91
□ 國文抄錄	95
□ <ABSTRACT>	98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시사평론시’는 일반적으로 ‘개화가사’라 통칭되는 일련의 작품군을 지칭하기 위해 본고에서 설정한 용어이다. ‘시사평론시’는 근대계몽기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작품이 창작된 기간이 짧다는 것에 비해 작품의 수는 무려 8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는 작품군을 일컫는 용어의 사용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사회등(社會燈) 가사¹⁾, 고정란 가사²⁾, 대한매일신보 가사³⁾, 신가사⁴⁾, 시사평론 가사⁵⁾, 개화가사⁶⁾, 계몽가사⁷⁾’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연구는 이들 작품군의 형식적인 특징을 ‘가사’로 보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전통가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매체나 시대적 특징을 앞부분에 첨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800여 편의 작품들의 성격을 적확(的確)하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어 사용의 오해에서 오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첫째, ‘사회등, 고정란, 대한매일신보, 개화, 저항기, 우국, 계몽, 시사평론, 신’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고정란’은 대상 작품을 지칭하기에는 용이기는 하나 작품군의 성격을 설명해 주지 못하며, ‘대한매일신보’는 시사평론란이 가지는 신문지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매

1) 조남현, 「사회등 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권오만,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1989.

2) 강은해, 「개화기 가사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3) 조동일, 「개화기가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 4, 계명대학 동서문화연구소, 1970.

4) 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의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5)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6.

6) 구자균, 「한말 우국경시가에 대하여」, 『문리논총』 4,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59.

7) 고미숙, 「한국 근대계몽기 시가의 이념과 형식」, 『한·중문학의 전통과 근대』, 제 30회 동양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중국현대문학학회, 1997.

체를 범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적당하다. 또한 '사회등'이라는 용어는 국한 문판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용어인데다가 국문판에는 아예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국문판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신'이라는 용어는 전통 가사의 하위 범주 안에 넣는 형식적인 개념에 그쳤기 때문에 이 역시 이들 작품군의 양식적 특성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에 반하여, '개화, 저항기, 우국, 계몽' 등은 작품의 시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화'는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서구화' 혹은 '보수적 민족주의'라는 단편적인 노선으로 보이게 하므로 적당한 구도는 아니며, '계몽'은 작품 안에서 그 보다는 훨씬 다양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용어이긴 하나 '근대성'이라는 개념이 역사상의 한 시기라기 보다는 태도이듯이 '계몽' 또한 태도의 문제라고⁸⁾ 본다면 그 범위는 무한정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800개의 작품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는 무리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시대적 사유가 '근대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계몽에 대한 강렬한 의식으로 응집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 그토록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 '계몽'이라는 말이 당대인의 의식을 대변하는 용어가 아니라 현행 연구자들의 시각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사평론'이라는 용어는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 의식과 창작의 동기를 잘 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시사평론'은 신문의 집필진마저도 작품을 실던 고정란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고는 작품의 당대적 가치와 실현에 주목하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시사평론'은 작품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도 유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계몽'이라는 두리몽실한 효용성과 결별하고, 보다 정치하게 작품의 메시지를 읽어내게 함으로써 효용성의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몽=민중의 교화'라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그 실현 양상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실질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가사, 시가' 등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 작품군을 '가사'라고 지칭함에 있어 그 형성과정이나 작품의

8) 윤평중, 「계몽이란 무엇인가」,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0.

고유한 특성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기보다는, 4·4조라는 리듬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하다. 이는 작품들이 지닌 고유한 양식적 원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전통장르와 근대시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들 작품군을 어느 하나의 장르에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품의 양식적 원리를 명료하게 규명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사'라는 용어와의 결별은 필수불가결하다.⁹⁾

'가사'라는 명명이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을 전통 장르인 가사(歌辭)의 변개(變改)라고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 '시가'라는 말은 전통시가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시대와 특정 매체에 한정적으로 나타난 일련의 작품군에 사용하게 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는 근본적으로 '청자'가 아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과, 작품이 가창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만 고려하여 보더라도 '가(歌)'라는 용어가 작품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작품이 출판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노래하기'가 아닌 '읽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문학이라는 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가(歌)'라는 용어를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시사평론란의 작품 가운데 운율과 단락간의 유기성을 구비하고 있는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詩)'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시사평론란의 전작품은 말 그대로 '시사평론'인 것이며 '시사평론시'는 시사평론란의 시사평론 가운데 일부 작품을 일컫는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사평론시의 연구는 공시적·통시적 차원에서 여타 장르와의 관계나 문학사적 위치와 함께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사평론란'이 어떤 모색의 과정을 거쳐 문예적인 지면이 되었으며, '시사평론시'는 시사평론란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소멸해 갔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9)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4음보격 연속체'라는 양식상의 공통성을 지니면 '가사(歌辭)'라는 이름의 역사적 장르로 설정해 오고 있다. 역사적 장르는 외적 형식(독특한 율격이나 구성) 및 내적 태도(태도, tone, 목적)의 양자 모두의 공통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성호경,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2. 대상 자료 및 연구 방법

지금까지 시사평론시에 대한 연구는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¹⁰⁾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말기의 대표적인 항일 민족지로서 국한문판, 국문판, 영문판의 3종이 발간되었는데, 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최대였을 뿐 아니라 발행부수에 있어서도 타 신문을 압도할 정도로 최고의 부수를 자랑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가 더욱 가치가 있었던 원인은 영국인 사장 배설이 발행인겸 편집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이나 압수 처분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그 논조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집필진의 의견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은 이 신문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사상적으로는 자주독립과 항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이 창간된 때는 1904년 7월 18일이었다. 창간 당시에는 매호 6면으로서 그 중 2면은 한글전용이었고, 4면은 영문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시 휴간하다가 1905년 8월 11일 다시 속간하면서 영문과 국문판을 따로 분리하게 되는데 이 때 국문판을 국한문판으로 바꾸어 발행하게 된다. 그 후 1907년 5월 23일에는 국한문판과 영문판 이외에 따로 국문판을 발행하였으니, 그 발행 부수는 1만부를 상회하게 된다.

국문판은 국한문판은 독자층이나 표기 문자의 면에서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국문판은 국한문판의 번역본이었다. 그러므로 국문판의 '시사평론'은 국한문판의 '사회등(社會燈)가사'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의 과정에서 사회등 가사가 그대로 국문판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국문의 묘미를 살리는 등 국문판은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본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대상 자료를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에 게재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의 발간부수는 총 929부¹¹⁾이며 그 가운데 시사평론은

10) 개화가사의 핵심줄기는 『대한매일신보』의 가사로 수렴되는 셈이다. 이 작품들은 양적으로 다른 장르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근대전환기 문학사의 보고라 할 만하다. (고미숙, 「개화가사의 연구사적 검토」,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11) 본고가 자료집으로 삼고 있는 『대한매일신보』국문판(관훈클럽) 영인본에는 총33호가 영인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929에서 33부를 제외한 896부만이 대상 자료가 되었다.

848개이다. 이 가운데 산문으로 된 작품은 200개이며 율문으로 된 작품은 모두 648개이다. 기존의 연구는 시사평론시를 '가사'로 보았기 때문에 시사평론란 안에 있는 율문으로 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본고는 시사평론시의 양식을 시사평론란이라는 고정란의 성격이 『대한매일신보』 안에서 어떤 위치였는가 하는 맥락 안에서 작품을 검토하기 때문에, 율문과 더불어 산문으로 된 시사평론까지 포괄하여 시사평론 전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¹²⁾. 이는 시사평론시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결된 형식을 전제하고 작품들의 성격을 산출하는 것보다는, 신문의 지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학적인 양식으로 완성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며 접근해 가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형식의 의미에 대해 진일보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작품의 계몽성을 탐색하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은 필요하다.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과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시사평론의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야말로, 텍스트 안에 담겨진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체의 소통구조¹³⁾ 안에서 그 비판의 대상과 비판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메시지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것은, '계몽'이라는 막연한 주제의식과 구도를 좀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다.

요컨대 본고는 이제까지 시사평론란의 연구에서 창작 주체와 비판 대상을 명확하게 분석해 놓은 연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시사평론란 안에서 작품을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지점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사평론시의 양식 특성을 고찰하고 그 양식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12) 본고에서는 '시사평론란', '시사평론', '시사평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사평론란'은 『대한매일신보』(국문판)의 고정적인 지면을 지칭하는 말인데, '시사평론'은 시사평론란에 게재된 산문과 율문 전작품을 이르는 용어다. '시사평론시'는 '시사평론' 가운데 율문으로 되었으며 시사평론란 안의 단락 전체가 유기성이 있는 작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13) 작품의 발표지면인 『대한매일신보』의 유통구조 및 그것을 둘러싼 집필진과 독자층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체계를 의미한다.

II. 시사평론시 계몽의 특수성

1. 소통구조에 따른 창작의 주체와 독자층

19세기 말 한국사회는 서양의 근대문명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닥뜨리는 이른바 서구의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기도 하였지만, 서구의 근대적인 물질문명을 앞세운 충격 앞에서 동양의 정신문명이 서양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부하는 것만으로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서양의 물질문명의 우월함을 선망하는 지식인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서양의 정신문명까지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근대적 지식인층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의 내부에는 시대적인 과제의 해결 방향과 방법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 조선의 근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혹은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철저히 투쟁하여 일제를 타도함으로써만 조선의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조선의 근대화 여부'를 놓고 한편 갈라지고, 또 '근대화를 이루는 방법'에 따라 한편 갈라지기도 하여, 근대계몽기는 한 마디로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을 어떻게 펼치고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한판 승부의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를 향한 방법론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론매체의 활용이다. 신문의 제작이나 편집에 참여한 계층은 주로 장지연, 신채호, 박은식, 이종일, 오세창, 유근, 양기탁 등 주로 개신(改新)유학자 출신이었는데 그 대부분은 명문벌족 출신이 아닌 전직 하급관리로 한학에 능통했던 인물들이었다.¹⁾ 이들은 언론매체

1) 부분적으로 유학생들도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관직이나 교육에의 참여를 선호하였던 것 같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대사강의』, 한올아카데미, 1997. p.260.)

를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피력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과는 사상적·정치적으로 입지가 다른 지식인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등 신문을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문은 그 논조가 어떤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면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신문들 사이에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동조하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사상이나 논리를 설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9월 13일자 시사평론란은 신문들 사이에 있던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 세상에 형제가 동복 형제도 있고 이복 형제도 잇스며 동성 형제도 있고 이성 형제도 잇는디 지금 대한세계에 형제신문이 싱겨났스니 국민신보와 대한신문이라 하나는 일진회로 부모를 숨고 하나는 현정부로 부모를 숨아 전후로 상응하며 괴이한 말이 허다하니 그 항렬을 의론하면 일진회는 현정부의 형이오 국민신보는 대한신문의 형이로다²⁾

이처럼 『대한매일신보』는 '현정부'의 기관지였던 『국민신보』와 『대한신문』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이 설정한 근대화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자주독립'과는 반대로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에서 근대화하고자 하던 '현정부'의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들은 '자주독립', '교육', '단체 설립'이라는 방안을 그들의 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이를 설파하려는 의도로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그들이 신문을 통해 계몽하려던 대상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들이 근본적으로 상정한 계몽의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다.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이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다시 거듭나야 가능한 것임을 그들은 신문의 논설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신문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문의 여러 곳에서 국민 전체의

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9. 13

계몽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이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기는 한다. 즉 신문을 통해 계몽하고자 하는 층이 애초에 국민전체였다는 기본적인 구도를 처음부터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글은 『대한매일신보』에서 국문판을 발간한 첫 날 괴서(奇書)에 실린 글이다.

(상략) 근일에 괴스에서 부인사회와 보통사회를 위하여 국문신보를 특별히 발간하신다 호노니 감스 막대하오며 우리 나라의 무론무론 남녀로소 하고 일노부터 문명의 공기를 흡수하겠스오니 우리동포의 문명진보와 갖치 귀사에서도 흥왕진보 되심을 응축이오며 (하략)³⁾

이 신문의 발간동기가 ‘부인사회와 보통사회에 문명의 공기를 불어넣어 우리동포의 문명진보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신문이라는 것은 일반국민의 계몽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문의 독자층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⁴⁾ 결국 집필진은 국민의 계몽이라는 발간 당시의 목적과 실질적인 독자층의 계몽이라는 이중적인 구도에서 기사를 쓰고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 안의 구체적인 지면으로 들어가면 그 구도마저도 어느 정도 해결

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괴서 1907. 5. 23

4)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 통계청, 일지사, 1994.

1910년 말 전국 인구는 13,313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인구는 278,958명으로 1990년의 2.6% 수준이었다. 당시 서울의 주택을 살펴보면 기와집, 반기와집, 초가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와집에는 ‘사회지배계층’이 살았다. 기와집은 1899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총 8,652戶였으며, 반기와집은 4,393戶, 초가집은 29,831戶였다. 본고는 시사평론의 비판의 대상이 곧 시사평론의 독자, 그 중에서도 정계관련 인물이라고 한 바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발행부수로 보나 구독했을 만한 사람들의 수로 봤을 때 위의 자료가 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자료출처: 「조선통감부통계년보」, 1910.)

또한 1906년 국민 1인당 연간 우편물 이용건수는 평균 약 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에서 『대한매일신보』를 매일 구독할 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더구나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은 먼 지방에까지 우송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소요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 구독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울 지방의 기와집에 사는 사회지배계층이 매일매일 이 신문을 읽던 주된 독자층이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자료출처: 「제1차 통감부통계년보」, 1906.)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면별 편집 체제를 갖추고 있다.

- 1면 : 사설, 관보초록-외보-동경전보-루터전보-북경전보,
대한고적, 헛스혼슈작, 사조
- 2면 : (앞)잡보(정치관련), 시사평론
- 3면 : 사고, 괴서-투서, (뒤)잡보(지방소식),
학계보, 지방정형, 편편기담, 소설
- 4면 : 광고, 지사광고

일자별로 이 체제를 항상 고수했던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 얼마간 침식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편집은 위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신문전체가 신문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들의 계몽을 위한 것이라는 큰 전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과의 관련하여 보면, 각각의 지면에 따라 집필진에서 임의로 상정하고 있는 독자층은 다르며, 또 그 목적과 글쓰기 양식 또한 특성을 달리한다. 그것은 각 지면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사설'의 경우는 집필진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실는 부분으로서 건조한 문체로 되어 있어 신문의 논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잡보'의 경우는 짤막한 기사를 여러 개 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편편기담'은 첨군자의 글을 받아서 게재하는 일종의 가십기사와 같은 지면으로 재미있으면서도 범상치 않은 일을 실고 있다. 또한 '소설'은 언문소설을 연재하여 실는 문학 지면이라 할 수 있다.

위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1면과 2면은 정치와 관련된 소식으로 문체도 건조하고 내용도 어려워 정치에 직접 관계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3면의 경우는 1면과는 달리 흥미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가 누가 되었는지 간에 언문을 읽을 수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또 4면의 경우는 광고문구가 그림과 함께 실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정보기사를 실고 있다.

'시사평론란'은 2면의 하단에 고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시사평론란은 정계소식이 주된 내용인 '잡보'의 뒤에 오며, 또 지방 소식이나 흥미를 위주로 하는 글들의 앞에 오는 지면이다. 다시 말하면 2면에 하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이나

그와 관계된 일들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의 독자 전체를 시사평론의 독자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1면과 2면에 관심이 많을 만한 독자를 위한 코너라고 봐야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사평론란의 독자는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당시의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 관련 기사에 매우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사평론은 (앞)잡보의 보도기사가 사실전달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집필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위한 지면으로 마련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앞의 기사였던 '잡보'나 '사설'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집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를 담아 비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만든 지면인 것이다. 시사평론란은 기본적으로 『대한매일신보』의 독자 전체를 상대로 창작되었지만, 신문의 편집체제나 내용을 볼 때는 독자 일반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란은 비판의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⁵⁾이 창작하면서 상정한 독자층은 독자일반에서 더욱 폭이 좁아져서 신문의 1,2면과 관계된 인물들로 한정지어 진다는 사실이다.

시사평론의 독자층이 이처럼 일반독자층으로부터 더욱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말해진 것'과 '말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만 설명되던 작품에서의 '계몽'의 범위, 그리고 그 의미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고,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독자의 범위가 투명해질수록 그들이 선택했던 양식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시사평론시의 향유층은 신문을 주도한 지식인층과 독자층으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하다.

2. 비판의 대상과 내용의 특징

시사평론란이 기본적으로 상정한 독자층은 일반국민이었지만, 『대한매일신보』의 소통구조라던가 각 지면의 성격을 아울러 생각하면 집필진이 창작할 때 실질적으로 염두에 둔 독자층은 일반국민 전체는 아니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시사평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시사평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판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시사평론란이 창작된 4년간 하나의 형식만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⁶⁾ 다양한 양식적 실험들은 어디까지나 시사평론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사평론의 지면의 성격 안에서 취해지는 것이지만, 점차 시사평론의 내용은 자신이 마련해 놓은 형식적 틀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사평론란 자체에도 일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비판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그것이 시사평론의 양식적인 특성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시사평론란을 시기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보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비판의 대상과 내용을 그 소통구조 안에서 해명하고자 한다.⁷⁾

1907년은 국문판 『대한매일신보』가 발간된 해(年)로 시사평론란이 그 지면의 성격을 굳혀나가려는 노력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사평론란은 그날 그날의 '잡보에 오른 기사' 혹은 '당대의 이슈'들을 신문의 논조 즉 집필진이 가지고 있던 논리에 맞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한 코너이다. 즉 초기의 시사평론은 주로 잡보에 오른 기사를 골자로 하면서 그 기사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을 가지며 창작되었다. 때문에 잡보의 주요 기사가 정계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기사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시사평론 역시 정계 인물에 대한 비판과 또

6)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이 장에서는 시사평론란을 형식상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III-1 참고할 것.

7) 셋째 시기는 둘째 시기(문예 기법 활용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서사 단락이 둘째 시기에 모색되었던 문예 기법 가운데 가장 빈번히 선택된 것으로서, 문예 기법 가운데 선택된 한 가지 양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 ㉠ ▲ 소위 칠대신의 비밀한 계책으로 량측 풍진에 무죄한 인민들이 무수히 스상했스니 한인들은 원슈라고도 하겠스나 일인의계는 대단히 유공한즉 한국의 칠대신이 일본정부에 별 상급을 얼마나 받을는지
 - ▲ 군대 리병무씨가 군터를 희산한일에 더하여 큰 스업을 혼줄노 누구 드러 말하여 곶아디 군터를 설시한 이후로 국스에 조곰도 리익은 업고 국고금만 손해를 하였스즉 이번에 희산 한일이 당연타 하였다니 즈고는 대신한 이후로 국스에 무슴 리익이 되었노 인민을 스상케 한 스업인가 소위 제 허물은 제가 모르고 남을 칙망흙은 붉게하는 격이로고 (하략)⁸⁾
- ㉡ ▲ 궁내부에서 순녕부를 설시하고 관제를 조직하며 황태즈궁에서도 시강원 관제를 조직하고 황후궁에도 관제를 조직한다하니 한국량반의 청환즈리가 또 싱긴지라 이러한 시디에도 디별만 의론하고 청환만 받들는지
 - ▲ 일전에 너부에서 군슈와 경무국장 서임할 안건을 통감부에 보내었스나 회답이 업기로 실시가 되지 못하였다니 지금부터 너부주본은 쓸디가 전혀업고 통감부 주본이라야 데일이 되겠네
 - ▲ 일인이 각부츠관을 피임한후로 가샤비 쓰지 마련한다하니 일본인이 한국 정부에 요임을 도득해야 과다한 월봉만 먹을뿐 아니라 가샤비 쓰지 맛으면 이는 진소위 썩도 먹고 알도 먹는 격이로고
 - ▲ 최석민씨는 시세를 미리 알엇던지 일진회에 부터 경리원경을 도득해야 각 디방에 잇는 역토파원과 슈세관을 일진회원으로 모다식혀주고 원경자리를 굿피려 한다하니 히씨의 약흔되는 참새와 굿홀뿐 아니라 박쥐의 구실도 능히 홀만 하겠고 (하략)⁹⁾

위의 작품은 신문의 잡보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유사하여, 사실 전달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잡보의 내용에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이고 있는 형태로 창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잡보의 기사가 정계의 한 인물 혹은 정계 인물들의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시사평론의 비판대상 역시 매 단락 별로 구체적인 실명인물¹¹⁾과 그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

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8. 3

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8. 14

10) '●쥬스쓰지 너부에서 각관찰부 쥬스팔명을 일본사름으로 식이려고 지작일에 니각데의를 청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잡보 1907. 8. 14)라는 잡보 기사에 '~할는지' 등의 평론을 덧붙인 것이 시사평론 초기의 유형이다.

11) 가령 '총리대신 이완용, 법무대신 조중응, 농상대신 송병준, 학부대신 이재준' 등 주로 칠대신의 매국, 매관매직에 관한 비판이 많으며, 그 외에도 각부 관리들의 비리, 일인 관리의 횡포에 대한 비판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 대상의 명시성은 비판하는 시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문면(文面)에 드러나는 시사평론의 비판의 강도가 한층 높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사평론에서 발견되는 비판의 강렬함은 그 시각이나 표현의 차원에서 보다 작품과 독자의 소통구조 안에서 살펴볼 때 더욱 강하게 감지된다. '말해진 것'은 그것을 말한 사람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문면에 드러난 표현은 집필진이 시사평론의 독자를 일반국민이라고 상정한 것이 아닌, 실제 신문의 구독자 즉 구체적으로 신문의 2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정했을 때 수용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시사평론 창작자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여서, 만약 그들이 창작 당시 상정한 독자층이 일반 독자가 아닌 특수한 계층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문면에 드러난 것과 실제 의도 사이에는 얼마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사평론의 창작자가 시사평론의 독자로 염두에 둔 실제 독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은 작품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독자란 앞서의 논의를 따른다면, 일반 독자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식견이 충분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사평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곧 시사평론의 실제 독자였다는 사실이다.¹²⁾

이렇게 볼 때 1907년의 시사평론의 비판은 매우 직설적이다. 작가는 비판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술을 언론매체를 매개로 토로하고 있던 셈이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간접적이었지만 그 소통구조의 내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상을 향한 매우 직접적인 목소리였다는 사실은 비단 작가의 입장 뿐만은 아니다. 시사평론 비판의 대상이었던 독자들 역시 그 비판이 자신들을 향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전

12)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3, 박이정, 1996.

시사평론이 창작될 무렵 신문에 사용된 정치 부분의 신어(新語)와 신조어(新造語)를 보면 시사평론의 많은 어휘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기정, 권력, 너치권, 너정, 독립국, 독립권, 동등권, 망명객, 보호국, 시국, 외교권, 의안, 의원, 조유권, 지정권, 정계, 정당, 유권, 참정권, 총리, 특권,' 등이 그것인데, 위의 어휘들은 시사평론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로 당시 시사에 아주 밝지 않은 사람이면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황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제하고 읽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사평론의 독자는 작품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과는 입장과 논리를 달리하는 지식인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은 인식상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시사평론 소통의 내적 구조는 상당히 직접적이었으며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이뤄진 언술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1907년대의 시사평론은 작가와 독자가 1 : 1 방식에 의해 그 메시지를 주고 받는 소통구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으며, 집필진의 정계에 대한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비판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 : 1 방식으로 그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직설적으로 이루어지던 비판은 1908년에 들어서면 1 : 1이 아닌 1 : 多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비판 대상에 대한 뚜렷한 명시성과 서서히 결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비판해 온 대상의 주변부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 다시 말해 실명 인물의 비판보다는 '대상의 유형화'를 통한 집단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 ▲ 흔편씩을 숱혀보니 각대관집 다화회는
팔선상에 둘러안져 포도쥬를 권혀면서
무슴의론 비밀흔지 고기셔로 쓰덕쓰덕
귀스속말노 흐는모양 지척긋치 력夕한다
- ▲ 또흔편을 숱혀보니 인력거가 번쩍번쩍
대로상에 횡차하니 대신흥츠 분명한다
압과뒤로 보호위의 추상보다 지엄해야
형인국축 흐는모양 지척긋치 력夕한다
- ▲ 또흔편을 숱혀보니 남대문밖 덩거장에
외국손님 마즈라고 각부관인 모혀드러
닷튀가며 몬져보고 별반정의 잇는드시
손을덤벽 잡는모양 지척긋치 력夕한다
- ▲ 또흔편을 숱혀보니 연회장을 설립하고
가진풍악 진동키로 호화즈데 방탕해야
엇기메고 손잡으며 밤낮으로 덜탕홀제
락이망한 흐는모양 지척긋치 력夕한다¹³⁾

이처럼 시사평론은 이제 인물 하나하나에 깊이 집중시키던 시선에서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작가들이 각각의 개별 사건에 일일이 들어가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한 자리에 서서 각각의 사건을 평면적으로 훑어보는 일종의

1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8. 2

카메라 눈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처럼 비판의 대상에 거리를 두는 방식은 시사평론의 형식과 동시에 이루어진 현상으로서, 이전까지 비판의 대상이었던 인물의 주변부 즉 그들의 자제, 그들의 생활의 주변, 정책 때문에 빚어진 국가의 폐해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면서 그 비판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시사평론의 독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1 : 多 비판 역시 비판의 직접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판 대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게 되는 이 시기에 보이는 또 하나의 현상은 시사평론의 작가들이 이제는 비판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대안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근대 계몽기 지식인의 한 부류였던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이 시사평론의 비판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자기논리였던 셈이다.

- ▲ 무궁화를 손에 들고
대한턴디 숲혀본즉 전지무궁 이강산은
근화고역이라함이 우연한말 아니로다
- ▲ 무궁화야 무궁화야
삼천여리 이강토가 한량업시 문명헌디
영웅렬스 만히나셔 일편단심 충성으로
국가기업 국제하야 너와갓치 무궁화자
- ▲ 무궁화야 무궁화야
스천년을 전히오는 례의동방 이아닌가
우리동포 열심되야 국민즈격 비양하고
선왕유풍 목욕하야 너와갓치 무궁화자
- ▲ 무궁화야 무궁화야
구미각국 유람하야 문명풍기 밧근후에
강장력을 양성하야 괄목상디 흐는날에
상등국민 새로되여 너와갓치 무궁화자
- ▲ 무궁화야 무궁화야
교육흐는 청춘즈데 영민하고 총명히지
신학문을 발달하고 기명정도 나아가서
동량지지 되는날에 너와갓치 무궁화자
- ▲ 무궁화야 무궁화야
금은동털 도흔보화 이강산에 만히나니
힘드려서 치광하면 부강국도 되려니와
인민싱애 넉넉일세 너와갓치 무궁화자
- ▲ 무궁화야 무궁화야
단과회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반포하니
일심으로 보호하면 누가능히 침범할짜

너와갯치 무궁햏자
 ▲ 무궁화야 夕夕夕夕
 텃동소리 진동기로 김히든잠 놀나씨여
 이시디를 숲혀보니 동방점점 붉어지는
 도흔운수 도라오네 너와갯치 무궁햏자¹⁴⁾

‘무궁화야 무궁화야’라는 호명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이 문면으로는 우리 동포 전체에게 고하는 목소리 같지만 실상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임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의 대안이 얼마만큼 현실적이고 타당했는가는 차치(且置)하고서라도 ‘구미각국 유람햏야 문명풍괴를 바꾼후 강장력을 양성햏야 상등국민 새로 되자’, ‘치광사업을 하여 부강해지자’, ‘단과회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반포햏자’라는 주장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무궁해질 수 없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변’으로서 이는 작가의 정치적인 반격인 셈이다. 이처럼 소통구조의 내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사평론은 보다 강한 실천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사평론에서 드러나는 대안은 형식적인 성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무궁화야 무궁화야~너와갯치 무궁햏자’라는 청유형 반복구의 영향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집필진이 단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 이면에는, 시적 표현의 사용으로 거칠지 않게 그들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그 내용을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1908년은 시사평론란의 문예적인 실험과 함께 작품에 드러나는 비판의 대상이나 내용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역설적이며 반어적인 ‘반복구’, 그리고 ‘서사 단락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시사평론은 비판의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작품의 문면에 직설적인 비판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비판의 대상에 있어서도 ‘인물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인물의 주변생활, 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사평론은 종전까지 감행했던 실명비판으로부터 그 범위를 넓혀, 점차 조직적으로 비판의 대상들을 유형화하고 정국의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부분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게 되

1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8. 6

면서부터는 ‘자기만족적인 글쓰기’¹⁵⁾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1909년대가 되면서 극대화된다. 즉 한정된 인물이나 인물의 주변 비판을 탈피하여 이제는 병들어 있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담아내려는 특징을 보고 있다.

- ▲ 왕산악의 거문고로
쓰르렁둥 줄을골나 시곡도를 한번트면
학도와서 춤추는디 동포아니 감동하라
- ▲ 당당하느 데이도로 청년학성 귀를씨워
애국스상 비양후후 춘분의기 고동하느
문명계에 소리내고
- ▲ 동동하느 데삼도로 실업가의 귀를씨워
경제목덕 주장후후 신발명을 열심히는
부강계에 소리내고
- ▲ 징징하느 데스도로 각사회의 귀를씨워
정신담합 혼연후에 대활동을 양성하느
단테계에 소리내고
- ▲ 청청하느 데오도로 각보관의 귀를씨워
창귀마귀 다면후후 대한국혼 일치안느
신문계에 소리내고
- ▲ 흥흥하느 데륙도로 각교인의 귀를씨워
의식례문 다브린후 실디도덕 숭상하느
종교계에 소리내고
- ▲ 등당하느 데팔도로 전국동포 귀를씨워
학문지식 발달후후 상등국과 비견하느
기명계에 소리내자¹⁶⁾

위 작품에서 보이듯이 시사평론은 ‘청년학도, 신문계, 종교계’ 등 다방면에 걸쳐 그 개명해야 할 부분을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09년에 들어서면 청유형의 반복구들이 점차 ‘구호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20세기 말 시대적인 상황이 일제식민지로 급속히 빨려 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움직임이라고 보여진

15) 자기만족적인 글쓰기란 문면에 드러나는 섬세하고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이미 유형화된 비판의 대상과 내용을 놓고 형식적인 부분에 공을 들여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필진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만족적 글쓰기이다. 이 즈음은 독자들의 형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시사평론란이 문예적인 지면으로 바뀌었으며 창작자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16)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8. 4

다. 정계의 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의 행태나 주변생활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이미 국가의 다급한 현실을 바꾸기 힘들다는 집필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즉 국가의 존폐위기 앞에서 집필진이 추구하던 현실적인 논리보다 구호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위기 상황을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1909년에도 역시 시사평론의 독자들은 한 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시사평론은 문면에 드러난 집필진의 대국민적 구호와와는 별개로 시사평론의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의미는 여전히 냉혹한 비판이었으며, 비판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 비판의 강도가 약해지는 일반론과는 다르게 오히려 망국의 상황이나 정서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구호였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 확인된다.

(상략)

- ▲ 축석루에 올라보니 진양강슈 푸르렀다
 섬섬옥슈 두손으로 왜장안소 써러지던
 일편의기 돌을하야 삼장스와 일반일제
 절개잇는 더론개의 죽은정령 그져있다
 너희들도 본을받고
- ▲ 광한루에 올라보니 오작교가 분명하다
 빅년가약 한번밧고 불경이부 하던정절
 쇼설가와 녀즈계에 모다칭송 하느바 | 라
 향기로운 더춘향의 죽은정령 그져있다
 너희들고 본을받고 (하략)¹⁷⁾

국운이 혼망할 때 시사평론의 작가들이 시사평론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왜장안소 써러지던 절개잇는 론개', '불경이부 하던 춘향'의 '죽은정령을 본받자'는 것이었다. 근대사회와 자주독립을 위한 언론항쟁이 그져 '국혼을 잃지 말자'는 추상적인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권이 없었던 집필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시사평론의 작가들이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처럼 '기원(祈願)'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현실이 더 이상

1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8. 3

집필진의 논리가 받아들여질 만큼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나라의 절망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구호로 일관하고 있는 시사평론은, 이미 '정신적인 무장말고는 대책마저 잃어버린 국가의 운명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여전히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집필진의 논리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용되기 힘들만한 상황에서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작가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시사평론은 이 시기에 형식상 또 한번의 실험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형식상의 단조로움이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시사평론이 전처럼 비판의 대상이나 내용 면에서 뚜렷한 설정을 잃게 됨으로 인하여 시사평론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¹⁸⁾

1910년은 시사평론의 쇠퇴기다. 작품의 수가 현저히 적으며, 한 작품의 분량도 매우 짧아져서 지면의 이름도 '시사단평'이라고 바뀔 만큼 그 위세가 일축된다. 이 시기에는 기존에 유형화시켜 놓았던 비판의 대상들을 그대로 열거해 나가면서 그들의 세상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시각이 작품의 주된 정서로 나타난다.

(상략)

- ▲ 남산텃경 츠자²서 이결호는 더헝식은
방계곡명 운동호여 당장영화 허욕내니
등잔스불에 나뵈로다 구스직의 총총이오
- ▲ 일평싱을 늘고먹다 졸디괴한 못견디여
무슴경영 싱각호고 동서남북 분주호는
비루헝식 가오 | 로다 협잡비의 총총이오
- ▲ 뵈고자를 숙여쓰니 기명자의 모양이라
쥬스청루 어디미노 이리더리 츠즈가며
화류장에 방탕호니 호화즈의 총총이오
- ▲ 양디마당 씨뉘거름 석양턴디 리왕홀제
탕스간장 녹여내며 혼거름에 티도짓고
두거름에 정을쏘니 매음녀의 총총이라¹⁹⁾

'당장의 영화를 허욕내는 구스직'이나 '일평싱을 늘고먹다 동서남북 분주호는 협

18) 시사평론란의 시기별 구분은 이 논문의 III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8. 2

잡비', '화류장에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호화족', '석양턴디에 리왕하며 매음하는 여성들' 등의 비판대상들은 이미 앞서기에 시사평론에서 충분히 비판되어 오던 유형화된 대상들이다. 다만 1910년의 시사평론이 그 전대의 것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시각에 있어서 훨씬 '냉소적'이라는 것과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극단적인 어휘나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0년대 시사평론이 다른 시기의 시사평론보다 전체적으로 분량이 짧아졌다고는 하나 비판의 수위가 종전보다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탁족회 ▼

- ▲ 룩월염턴 폭양중에 서늘한곳 츠즈가니
폭포슈가 흐르는데 귀이닝식 모혀안져
탁족회가 란만한다
- ▲ 일시공명 도득코져 환힝풍과 무릅쓰고
눔의치질 싹어주니 그힝습이 비루한다
전신악취 편안하니 그심장을 씨셔보지
- ▲ 일평생에 흐늘일은 세력자만 츠즈가서
각식으로 아침홀제 빛는침을 밧어먹고
누는똥을 맛을보니 그아가리 씨셔보지
- ▲ 잠시세력 빙자하고눔의지산 탈취하니
그힝동이 가통한다 비에 ㄱ득 구린냄새
도쳐마다 축비하니 그창즈를 씨셔보지
- ▲ 국가스늘 하여튼지 주석장에 출몰하니
그신세를 무엇홀꼬 회과즈칙 흐지안코
거거의심 추비하니 그모음을 씨셔보지
- ▲ 파리썰의 모양으로 이리더리 몰녀가며
더가리를 숙으리고 벼술달나 익결하니
낫과덕이 썩썩한다 그년목을 씨셔보지²⁰⁾

위 작품은 '탁족회'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유월의 무더운 어느 날 서늘한 곳을 찾아가서 발을 담그는 모임'을 서사 단락에서 제시한 다음, 각 단락마다 무엇을 씻어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판의 대상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작품이다. '일평생 세력자만 찾아다니며 아침하는 무리'에 대해 '그들이 빛는 침과똥을 먹었으니 그 아가리를 씨셔라'라던가, '파리썰의 모양으로 몰려다니며 벼술달라 더가리를 숙으리고 익결하는 무리'에 대하여 '그년목을 씨셔보라'는 등의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910년 작품들의 특징적인 비유

2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8. 5

들은 작품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데 가령 '거미줄', '하로살이세계', '구미호', '물겹
품세계', '모기째', '앵무새', '병신회사' 등으로 비판의 대상들을 냉소적이면서도 강
렬하게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권이 넘어가기 직전의 급박한 상황이었던 1910년대에의 시사평론은
대체로 유형화 된 비판의 대상을 냉소적이며 극단적인 어휘나 비유적 표현을 통
해 단평하고 있다.

이처럼 문면에 나타난 시사평론의 비판 대상과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통구조 안에서 살펴보면 그 독자층과 작가층이 뚜렷하여서
그 안에 담긴 실제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
사평론란은 근대 계몽기의 지식인의 한 부류인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이 당시
의 기득권인 정계에 있던 인물과 그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작가의
자기논리를 펼치기 위한 신문의 한 지면'이었던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3. 계몽의 특수성과 한계

시사평론은 그 소통구조의 내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정치적인 것을 염두에 둔 글쓰기였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대한매일신보』의 소통구조나 각 지면의 성격으로 볼 때 시사평론은 신문의 일반독자, 그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임을 알 수 있었다. 비판의 대상이나 그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시사평론은 신문의 1면과 2면에서 다루는 사건과 인물, 즉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집필진의 맹렬한 목소리였다. 비록 시사평론란의 형식은 그 직설적인 비판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흐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계의 구체적인 인물비판에서 시작하여 정계 전체의 비판, 그리고 그들이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정계 인물의 주변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아가 각 사회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시사평론은 그 비판의 대상을 점차 넓혀가기는 했으나 결국 그것들은 다시 정치인들을 망국의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일종의 반격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비판의 범위가 아무리 넓어졌다 하더라도 시사평론의 독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집필진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매개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사평론은 그 목적부터가 『대한매일신보』를 발판으로 자신들과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응하며 자기논리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창작한 글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를 근대계몽기로 설정하고²¹⁾ 그 기간 동안 창작된 작품들을 모두 계몽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계몽’이란 한정되지 않은 매우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시대의 모든 문화현상을 모두 계몽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²²⁾

21)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화사연구』 14, 소명출판, 1999. 참조.

22) 계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 움직임은 신교육운동을 제외하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대사강의』, 한올아카데미, 1997. p.254.)

계몽이란 역사적 총체성이나 미래에 의거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오늘이 어제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묻는 일종의 '출구(Ausgang)'²³⁾ 개념이며, '근대성' 역시 역사의 한 시기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이다. 태도라는 것은 현실에 관계되는 양식이며 자발적인 선택이자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성의 태도가 반근대성의 태도와 어떻게 싸워왔는가의 문제로 변별되듯이, 계몽이란 역사적인 특정시기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런 권위에도 이성을 종속시키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하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사평론이 창작된 시기를 근대계몽기로 규정한다고 해서 언론매체를 위시한 사회전체가 일사분란하게 계몽이성(啓蒙理性)으로 뚫뚫 뚫쳐, 모든 문화 현상들이 근대를 향한 노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²⁵⁾ 계몽의 층위는 천차만별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이 창작될 때 수반된 모든 창작의 동기와 작품의 내용들이 계몽으로 치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란은 정치적으로는 실권이 없던 인물들이 『대한매일신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와 정계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기 위해 창작된 글이다. 만약 계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면 시사평론도 계몽이성의 한 부류로 이해할 수는 있다.

인간이 아무런 권위에도 이성을 종속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간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비판인데 비판의 역할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게끔 이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23) 윤평중, 계몽이란 무엇인가,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0.

24) 계몽이란 사회 발전의 어느 지점에 속한 일련의 사건과 역사과정의 혼합체이다. 그렇게 때문에 문제는 계몽이라는 포괄적 규정 아래에서 개화기 이래 1910년대 문학에 이르는 과정을 연속선상 위에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기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계몽의 성격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손정수, 「1910년대 문학에 나타난 계몽성의 변모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계몽담론』, 새미, 1999.)

25) 개화기 시가양식에 담긴 사상적 지향이 단지 계몽성이라는 범주로 일원화되면 다양한 내적 차별성은 희석화되고 만다.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p.259.)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다.……어떤 의미에서 '비판'은 계몽이 낳은 이성의 안 내서이다. 계몽은 비판의 시대인 것이다.²⁶⁾

즉 당대 계몽운동의 전체적인 방향과의 관련 속에 시사평론을 위치시키고 시사평론의 비판들을 역사적 성숙함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한다면 시사평론도 일종의 계몽운동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품 내부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양식적 원리를 밝히기에도 부적합한 추상적인 시대정신이다. 물론 계몽이성이나 근대성은 사회조직체에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장소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사평론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시사평론 양식의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그것이 지칭하는 범위가 대단히 불분명하고 광범위하며, 오히려 창작의 동기와 관련하여 그 작가정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시사평론란은 집필진의 입지와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 당국자를 비판하는 형식의 지면을 마련한 것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가, 단순하고 건조한 시사평론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형식장치들에 의해 문예화 된 지면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설적인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집필진의 자기만족적인 글쓰기로까지 나아간 신문의 한 지면이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당국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하여 폐간 때까지 그 지면 성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한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 형식적인 기법을 시의 적절하게 변형하면서 사용할 만큼 집필진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 바로 시사평론이다. 결국 시사평론의 작품 성격은 당대의 실현 양상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로 인정해 주었을 때 가장 작품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사평론시는 근대계몽기라는 특수한 시대에 창작되고 읽혀졌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유 방식이었던 계몽의 자장 안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언론매체는 계몽운동의 한 방법론으로 일부 지식인들이 선택한 노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 역시 계몽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소통구조 안에서 볼 때 신문이라고 하는 출판물은 그 독자가 한정되어 있었고, 더구나 신문의 지면 성격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시사평론란은 정치적인 효용성

26) 윤평중, 「계몽이란 무엇인가」,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0.

을 깊이 염두에 두고 창작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계획했던 계몽이 일반국민 전체를 의식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시사평론시를 창작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계몽은 매우 그 대상에 있어서 한정적이었다. 더구나 근대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자체가 계몽 이성이라고 할 때 시사평론 안에는 이것을 계몽 이성의 소치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만큼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이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계몽이라는 이름이 후대 연구자들의 시각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역사의 발전선상에서 이 시기의 모든 현상을 근대지향 혹은 계몽이라는 구도 하에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계몽이라는 용어가 당시의 다양한 첨점(尖占)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도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리하게 모든 현상을 계몽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 시각의 단일함으로 인해 복잡다단했던 당대 현실들에 눈감아 버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평론 작가들이 그 지면의 성격으로 이름 붙여 놓은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사평론란은 분명 시사를 평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면이었던 것이다. 당대에 그 작품을 향유한 작가나 독자들의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문학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면 굳이 그들이 사용한 '시사평론'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리고 '계몽'이라는 이름을 무리하게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I. 형식적 특성과 그 의미

1. 시사평론란의 성격과 그 양상

신문은 사실의 보도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은 그들이 가진 주관적인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기 위한 지면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시사평론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문예적인 관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당국에 대한 평론이 독자로 하여금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기법들이 도입되게 되는데 그 안에 문예적인 기법도 첨가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사'라는 완성된 형태가 되기까지 어떤 과도기를 거쳐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기존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원래 문예적인 창작 의식이 없던 신문이란 지면이 점차 문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과정 하나 하나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지 4·4조의 운율만으로 가사로 평가되던 작품들이 시사평론의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 하에서 새롭게 부상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전통장르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식의 평가는 시사평론을 작품성의 결여라던가 가사의 변이형 정도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시사평론란 내부의 새로운 형식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만이 비로소 시사평론의 고유한 형식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문이라는 발표지면의 특수성과 시사평론이라는 지면의 특성, 그리고 독자의 특수성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새로운 양식이 어떤 변모의 과정을 거치며 배태(胚胎)되었는지를 밝혀보기로 하자.

1) 모색기 (1907. 5 ~ 1908. 1)

시사평론란이 어떤 일련의 모색을 거쳐 하나의 양식으로 거듭나고 또 소멸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한매일신보』의 시사평론 전체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모색기이다.

모색기는 명칭 그대로 완성된 형태의 양식을 곧바로 지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실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양식적인 준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를 일컫기 위하여 연구자가 편의상 도입한 용어이다. 모색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사평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벗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시사평론이 율문 만을 지향한 코너가 아니라는 점, 둘째는 ‘시’ 혹은 ‘시가’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락의 개념을 ‘연’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단락’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셋째는 작품의 대상을 율문에 국한시키지 말고 산문을 포함하여 시사평론란이라는 지면에서 창작된 모든 작품을 통괄하여 분석하여야만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 내의 전 작품을 통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모의 양상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형식적인 틀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내적인 준거를 마련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모색기는 1907년 5월에서 1908년 1월에 이르는 기간이다.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신문에서 집필진의 주관적인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면으로써 고안된 시사평론이었기 때문에 시사평론에 사용된 표현들은 처음에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것이 그 특징이었다. 또한 잡보란에 게재된 그날의 이슈라던가 당대의 이슈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사평론은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통 8개~10개 정도의 현안을 ▲표지를 기준으로 평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모색기의 ‘시사평론’이라는 용어는 지면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한 것으로 『신보』 내에서는 다른 지면들과 구분 짓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시사평론란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아직 시사평론이 집필진과 독자층에게 호응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모색기의 시사평론은 이러한 시사평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거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모색기 동안에 시사평론은 어느 한 가지 형식을 취했다가 버리고 또 다시 취하는 방식으로 모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의 모색을 거친 후 시사평론은 곧바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였으며 그 위에 또 다른 형식적인 실험들을 추가해 얹어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해 나간 이른바 '역사성' 있는 양식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통시가의 한 장르나 같은 시기의 한 장르를 답습하는 식의 변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평론이라는 지면의 성격을 철저히 그 내적 기준으로 삼고 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끌어다가 시사평론의 성격에 맞게 갈아 입히는 방식이 바로 시사평론이 자기형식을 갖추어 나간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907년 5월부터 그 해 8월까지의 시사평론은 애초에 규정지어진 시사평론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일에 일어나는 정계소식을 집필진의 논리에 맞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현에 있어서도 해학적인 비유와 구어체 등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다른 수사적인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던 것이 1907년 8월을 넘어서면서 역설법, 반어법 등의 수사적인 기교를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시사평론의 마지막 연에 시사평론 전체 단락을 통합하는 결구방식이 나타나는 조짐을 보인다.

- ▲ 청국 정부는 대한국운의 비참함을 보고 혁명당의 폭동함을 경계하기로 헌법정치를 실시하여 나라운수를 도리키고져할 때 서태후가 슈렴텅명함을 폐하고 황대씨서 만기를 총찰하자 정부의 면목이 시로으며 디방의 제도가 반포된다하니 이는 청국 텅디에 기명홀 시다가 니른거시라고 (중략)
- ▲ 수년이리로 한국인민이 정부의 압제와 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향홀바를 알지 못하기로 서국교에 드러가는자가 만터니 근일에는 입교인이 더욱 허다하여 교회가 대단히 흥왕한다한즉 한국 압제와 일인학대로 반동력이 심겨 대한텅디가 괴독국이 되리로다!

이것을 시작으로 1907년 8월 27일에는 시사평론 전체 단락의 첫 부분에 동일한 반복구를 사용하면서 시사평론의 각 단락이 잡보란처럼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듯한 인상에서 '시사평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그날 통일성을 기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단락의 유기성에 대한 의식이 시사평론란의 창작의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시사평론은 새로운 양식에 대한 모

1)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8. 21

색과 기존 틀이 교차되는 등 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창작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모색기의 시사평론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모색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아직 형식적인 실험이 시사평론란 지면의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형식적인 실험들은 부분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지면의 성격을 크게 의식한 탓인지 형식적인 실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도 못하며 또 시사평론의 내적 성격을 변모시킬 만큼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도 않다.

전체 단락의 유기성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 가운데 초기에 게재된 작품은 1907년 10월 17일의 작품이다.

- ▲ 대한사람의 데일 심헌 고질은 스환성벽이라 지금은 한국의 벼슬을 외국인이 만히 덤령흐엿스즉 한인의 스환벽이 즈연 업서질듯호오 아시오 아직도 멀엇쇼 지금도 유세력한 대신집에는 너음시를 맛는 프리제들이 분주흐옵되다
- ▲ 산림과 학재들은 즈기의 몸만 홀노 착호게 흠을 칭락호야 나라는 구완홀 생각이 업고 지상가들은 스스 권리만 셔로 닷토와 나라를 유지홀 생각이 업고 즈본가들은 저희 지산만 다형이 보전코져 호야 공익상 스업에는 주의호는쟈가 조곰도 업스니 아마도 대한에 나라를 망호 칙망은 이러호 당과 세집에서 능히 면홀수가 업겟지
- ▲ 경리원에 소관되던 각 역둔토에 슈조위원을 파송호는디 동남 각도는 총리대신 리완용씨가 츠지호고 셔북각도는 농상대신 송병준씨가 츠지호기로 결명을 호엿다호니 지금도 정부대신들의 분식호는 구습이 잇서서 슈조위원이 량대신의 반찬단지가 되엿는가
- ▲ 근일에 관제를 기명호는디 각부부원에 셔기량을 변호야 속이라호다 호니 한국풍속디로 성즈를 썩셔 벼슬을흠을 부르면 리가는 리속이되고 박가는 박속이되고 비가는 비속이 되겟스나 삼속중의 데일 나혼거시 리속이라 홀썩호지
- ▲ 강원도 선유스 홍우석씨는 일도 인민을 효유호야 안점호게 호다고 대담호며 위풍이 당당호더니 무슴 연고로 히도 관찰스와 상지가 되엿는가 일군중에 량장군이 셔로 불화호면 성공호기는 필시 어렵겟다호겟지
- ▲ 경시청에서 경찰 스무를 확장호다호고 순검을 각지방에 더 파송호여도 적경과 민요가 더욱 성호지라 근일에 총순 심스인을 심삼도에 더둔다호니 총순만느리면 경찰스무가 즈연히 잘될호고²⁾

이 작품은 첫 연에 '공부'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각 연을 그와 관계된 별개의 사건들을 적은 후 마지막 연에 가서 총평을 하는 방식으로 통일성이 내재되어 있다.

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0. 17

이후 단락간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창작하는 방식은 점차 시사평론 안에서 관습처럼 되어 가는데 1907년 12월 10일에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시사평론의 양식적인 틀을 굳혀 나가게 된다.

- ▲ 여보 근일에 한국너에 유명무실한 일이 허다하니 웬일이오 지금 니각에 정치를 쇠신한다하고 관제를 기뵈려야 여러 가지 스무를 일시에 번복하되 법령은 실시치 못하고 시세는 위급하니 이거시 웬일이오
- ▲ 법률을 기정하고 신법령을 시행코져야 법관을 더느려서 두엇스되 송스는 더욱 번다하고 법령은 여전히 흑독하야 사름마다 의혹하고 일마다 불편하니 이거시 웬일이오
- ▲ 세정이 문란하야 세무관을 설시하고 세전을 슈봉케하되 흑 람봉하는 폐단이 잇서 민원이 량자하고 흑 범포혼자가 잇서 밧을 곳이 업는고로 국고가 점점 탕갈하니 이거시 웬일이오 하략³⁾

특히 1907년 12월 13일에는 ‘서사-본사-결사’의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각 연의 뒤에는 반복구가 있으며, 서사와 결사가 따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사평론이 소멸되는 날까지 가장 전형적인 시사평론 양식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각 단락의 유기성을 도모하는 방식 이외에도 시사평론은 다양한 모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 보름밤에 등근들이 그믐되야 기우렸네
환희풍과 조슈물도 돌을싸라 줄어진즉
닐곱척 크나큰비 더일곳이 전혀업다
못노라 범슈가 기고보면 채턱이 아니올가
- ▲ 노다라하는 더농부가 농스지여 거둔곡식 태산갯치 싸아눗코 함포고
복 흐렸더니 부상희외 비을 타고 무릉도원 차자가서 세상스를 피하
려느냐 문전 옥토 다버리고 어더로 가려는고 노다가쇼 노다가쇼 양
춘가절에 노다나 가쇼
- ▲ 총리대신 리완용씨는 근일에 쇼스벼슬을 겸임하엿스즉 대신디위는
갈닐지라도 쇼스턱호는 그져 잇슬거시니 여보 리쇼스덕 대감마님 언
제 과거하섯쇼 노다 거리는 셔방님을 일코 혼자 엇지나 살쇼
- ▲ 너부대신 인선준씨와 탁지대신 고영희씨는 갯흔 디위로 갯치 벼슬하
고 갯흔 리웃에 갯치 벼슬하고 갯흔 리웃에 갯치 살아서 정의가 대
단히 친밀홀뿐아니라 근일에 무슴 비밀한 의론이 쏘 잇는지 밤마다
무릅을 맞디이고 귀쑥말이 오락가락한다하니 량이는 갯흔 일을 갯치
근심하고 갯치 나아왔다가 갯치물너가랴는가 량대신은 갯홀동즈가

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10

만혼즉 동동이패라 홀만호고 (하락)⁴⁾

위의 작품은 시사평론에서 처음으로 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학성을 지향하게 된다. ‘보름밤에 둥근돌이 그믐되어 기울게 되자 환희풍과 조슈물도 동시에 줄어들어 날곱척 큰 비가 더일곳이 전혀업다’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는 직접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던 시적 이미지인 ‘달’과 ‘배’를 사용함으로써 체득하게 된 효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적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시사평론의 첫 단락을 산문이 아닌 운율로 창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서정성을 자아내는 전통적인 시적 이미지와 4음보의 운율이 더해지면서 이 작품의 첫 단락은 시조나 가사 등 전통시가의 일부분으로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짜의 시사평론 내에서 보면 이 한 단락만이 운율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존의 시사평론시에 대한 연구는 ‘가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처음 나타난 운율을 거의 무시하고 있지만, 사실 시사평론시는 ‘가사’를 지향하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시사평론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그날 그날의 작품을 기준으로 당일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오는 방식으로 형식이 형성되어 간 것이었다.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시사평론이 율문 작품이 많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사평론란’ 자체의 성격을 ‘율문 지향’적인 지면으로 고정시켜 놓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작품은 첫 단락에서 율문을 취택하고는 있으나 후기에 보이듯이 서사 단락을 활용한다거나 다른 단락간의 유기성을 깊이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보아도 시사평론에서 작품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단락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사평론에서 서정성이 처음 가미된 것은 1907년 10월 4일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한매일신보』가 이 날 신문에 처음으로 ‘턴기예보’라는 코너를 삽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턴기예보’는 2면 시사평론 뒤에 자리잡고 있는데, 오늘의 날씨에 대한 예측을 기록한 지면이다. 1907년 10월 4일 시사평론의 첫 단락이 “어제 날 동녘 바람소리가 다시 내려니 삼천리 지경을 일시에 혼동하매 만리환해에 풍

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1. 26

파가 또 일어나 일곱 척 큰 배가 흔들리는데 위태치 아니한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턴기예보’가 신문지상에 오르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 이후로 서정성이 농후한 작품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위의 작품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사평론은 비판의 이슈만을 건조하게 비판하던 것에서부터 탈피하여 점차 계절, 날씨, 달, 국경일 등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 ▲ 세월아夕夕夕 가지를 마라 룬회원년 쏘다갓다
턴운이 순환하여 일시점운 다지나고
문명시디 도라와서 승평일월 다시볼가
- ▲ 세월아夕夕夕 가지를 마라 대한산천 다 늙는다
털도군용 황무디는 산령슈신 통곡한다
편편옥토 부동산을 늙주는게 웬말인가
- ▲ 세월아夕夕夕 가지를 마라 칠대신 다 늙는다
숨결긋흔 이세상에 목전부귀 탐치말쇼
신후스를 싱각하면 류취만년 더럽도다
(중략)
- ▲ 세월아세월아 가지를 마라 활살긋치 썰은광음
송구영신 호노라고 몇날을 휴간하니
익독하는 첨군긋기 창결회포 괴지업다
새희복을 만히밧아 긋치 태평하여보세⁵⁾

위의 작품은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로서, 12월 31일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는’ 독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비판의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시사평론란의 작가들은 ‘일상적 생활에서 소재를 적극 끌어들이 보편적인 심리 상태를 토대로 서정적인 작품들을 창작’해 나갔는데, 공감대의 형성이야말로 시사평론란이 지양하는 원래의 목표와도 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사평론이 모색했던 다양한 기법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주류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대화양식’의 도입이다.

- ㉠ [갑을병정] 석탑우에 갑을량 로인이 상더하고 안져서
갑을노 시스를 평론론다

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31

[갑] 지금 국세가 위급하야
삼천리 강토는 물 쓸뚝하고
정돈하는 방침은 전혀업스니
당국은 너각의 대신들은 시위소찬이 이 아닌가

[을] 여보 그말이오
당국 대신들은 즈귀의 디위를 유지 하기에
넘불급타로 디방의 민정은 타인의게 맞겼스니
성령이 어육됨은 썸밭길세 (하략)6)

㉞ ▲ 토론문대 ▼

문대는 박동보성학교 스건
문 박동 보성학교는 국너 스립학교의 데일등되는자라
문명을 지도하며 인지를 양성헌 효력이 적지 아니헌거슨
교주 리준호씨가 성의를 밧들어 열심히 담착헌 썸뚝이러니
졸디풍파에 교주가 폐지되니 비단 교육계에만 불헝일뿐 아니라
일반 공의가 대단히 분울홉디다
답 년력에 대한 정치계를 불진디 혼이 흐로밤 스이에 별반운동이 싱겨
놈의 권리를 썸앗든자가 잇더니 금일에는 교육계에도 모야부지간에
비밀히 의론하야 놈의권리를 썸앗는 헝위가 나타나니
이거슨 한인의 괴묘헌 슈단이라 홀는지 법률학교의 쥬지라 홀는지
(하략)7)

㉟ ▲ 문밭 목축장에 모든 즘싱이 모혀 각기 저희 공로를 즘랑헌다

소 나는 각쳐식골노 도라든니면서 쥬인집일만 홀썸아니라
놈의밧갈기와 놈의짐싯기를 잘헌디 잘헌여도
미질이오 못헌여도 칙직질헌는거슬 불계하고
타국사롭의 일이라도 힘을 앗기지안코헌여주지
물 나는 무거오나 가비야노나 슬탄말도 못하고
죽을힘을 쓰며 짐시리를헌디 요스이 더 죽을노릇은
일병인지 무어신지 류마로 잡아셔 각디방으로 도라든니나
여물죽노 어여시 엇어먹지못하고 짐삭도 잘맛지못헌지
개 나는 대문간으로 방을숨고 밧것 도적을 직히노라니
쥬야장턴 든잠도 잘자지 못헌지
뚝 나는 수만장안 가가로로에 김히든잠 김히든썸 어셔깨라고
목을느리고 해를치면서 울어 썸을 일치안코 경고헌니
사롭이 다깨여 제썸에 일을헌지
양 나는 성질이 본리 순랑하야 놈이
이리오라면 이리오고 더리 가라면 더리가셔
지휘명령을 홍상 순썸헌니 편키는 데일이지
도야지 여보게 즘네들 공로라고 즘랑은 헌지마는

6)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15

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20

- 타국사람의 일을 잘혀주니 칙직마저싸지
 ○ 짐삭노니 죽도못잇어먹어 싸지
 ○ 밧기 도적을 잘직허서 네집안이 평안흐냐
 ○ 사람이 다씨여서 님의 노래가 되엿느냐
 ○ 님의 지휘만 순종흐니 몇날이나 편홀소냐
 ○ 즈네들 써夕도스럽다 아모공로도업는 나만도
 못흐다국으로 가마니나 잇거라⁸⁾

㉠은 '갑을 량로인이 상디하고 안져서 시스를 평론하는 모습'을 작품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단락별로 구성하고 있다. '니각대신'에 대한 비판을 이전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화자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속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 시사평론이 이러한 형식적인 틀에 힘입어 더 현실감 있고 심도 있게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의 형식은 유용하다. ㉡의 작품은 '박동 보성학교 임원개정에 관한 스건'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표시 대신 '문', '답'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답의 형식은 토론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당대에 유행하는 토론문화를 빌어 '시사평론 식으로' 용해해 버림으로써, 시사평론의 주제와 형식이 만나 각각의 성격을 살려주는 묘미를 자아내고 있다. 글의 앞부분에 <토론문제>라고 붙여놓은 것은 글의 제목이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시사평론의 다양한 형식적 모색들을 독자로 하여금 빨리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달아놓은 일종의 안내표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도 대화 방식으로 구성한 작품인데 <갑을문답>의 2인 대화방식과는 달리 '목축장의 모든 짐승들이 모여서 저희 공로를 자랑하는 형식'으로서, 당시 유행하던 토론체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마지막 단락에 '○'표시를 하고 도야지의 총평을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시사평론란이 어떤 일정한 형식적인 특성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 문일지십가
 ▲ 일국을 혼동흐니 니각대신의 권리로다
 나라권리 다풀아서 즈기디위 미득흐니
 독전기리 도홀시고
 ▲ 이천만중 우리동포 심명지산 엇지흐나
 불고싱령 더관리들 탐학에 만종사하니

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29

준민고택 묘홀시고

▲ 삼백스십여군중에 늪은토디 얼마런고
륙리청산 더괴잇다 륝국산천 굽어보니
초잠식지 묘홀시고
(중략)

▲ 십싱구스 흐더라도 일심으로 단테호야
자유종을 크게치며 독립기를 놓히들고
굴네밧게 버셔나서 동양에 호령하면
당당데국 묘홀시고⁹⁾

㉞ 칠현금을 빗기안고 세상스로 줄곧으니
산슈구곡 청아흔디 내심회가 불평한다
데일곡 시국을 숭혀보미 밧피느니 형편이라
한강슈는 썩그리고 북악산은 근심한다
영웅렬스 몇몇친고 숭흔눈물 절노난다
시르렁 등덩실

데이곡 나라풀아 었은디위 칠대신이 누구신가
평심헝락 흐렷더니 홀디풍과 었지말고
화륜선에 돛을다니 리두안위 넘려로다
시르렁 등덩실
(중략)

대구곡 청산아 무러보자 세상스를 네알리라
종스는 오백년시오 폭원은 삼천리라
어느때나 풍진기여 태평세계 되어볼가
스르렁 등덩실¹⁰⁾

㉞의 <문일지십가>라는 작품은 시사평론에 처음으로 제목을 달아 놓은 작품이다. 앞서 예시한 <토론문제>가 글의 제목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듯이 <문일지십가>라는 제목도 시사평론 열 개의 단락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歌)'라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읽는 행위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체현시키고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해 주는 작품이다. 또한 4·4조의 리듬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 시사평론의 창작의식 전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07년 12월 18일자 시사평론이 '가(歌)'로서 읽히기를 바라는 집필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시도들이 후에 또 다른 모색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시사평론의 양식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되는 것이므로 이 작품을 근거로 시사평론의 율문을 '가사'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은

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18

1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11

무리가 있다.¹¹⁾ 이 날의 시사평론을 율문을 지향하는 기점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단지 그날의 시사평론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모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서 시도되었던 기법들의 축적을 통해 나온 것이지 가사를 지향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은 아닌 것이다. ㉔의 작품은 <문일지십가>에서 단락을 끌고 나가는 방식의 또 다른 변용으로 보아진다. ‘칠현금을 빗기안고’, ‘데일곡, 데이곡……’이라는 부분으로 보아 이 역시 ‘가(歌)’로써 읽히기 위한 형식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런 기법을 통해 단락간의 통일성을 견지하고 있는 작품은 많아서, 가령 ‘한 구비, 두 구비……’¹²⁾ 등 다양한 단락의 전개방식이 있다. 이러한 형식들은 시사평론의 다양한 틀거리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시사평론은 자기양식을 고안해 내기 위해 전통장르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차용해 온다. 가령 위 작품은 서사 단락에서 칠현금을 켜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락은 칠현금의 소리를 ‘스르렁 동덩실’이라는 의성어를 반복하면서 칠현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민요의 수요에 해당하는 방식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시사평론은 민요를 비롯하여 시조, 판소리의 사설, 잡가의 후렴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장르 그 안에 포섭하고 있다. 이처럼 시사평론이 자기 양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어느 한 장르만의 영향을 관습적으로 따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안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논리에 맞게 차용하고 변용시키는 가운데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1) <문일지십가>를 가사의 첫 작품으로 보는 연구자는 김영철, 강은해, 권오만 등으로, ‘4·4조라는 최소의 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사회등 가사의 특징적 성격들을 고루 갖추었다’는 의견이며 권오만은 거기에 ‘최소한 분연체라는 성격을 하나 더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4·4조라는 것은 전통장르의 많은 양식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것이며, 더구나 가사는 양식적으로 분연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로 환원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시사평론 양식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운율을 가진 작품만을 별개로 ‘가사’라고 본다면 시사평론란의 수많은 작품들은 ‘가사’의 변이형 내지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1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14

모색기로 일컬어지는 시기 동안 집필진이 발견해 낸 방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서서히 자리를 굳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서사(序詞)' 단락의 활용이다. 서사 단락이란 전체 단락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나머지 단락들을 유기적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단락을 의미한다. 서사 단락을 통해 시사평론은 각 단락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 문예적인 기법의 활용, 창작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그 효과는 클 것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¹³⁾ 다음으로 서사 단락만큼 자주 활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사평론은 '결사(結詞) 단락'을 활용하기도 한다. 결사 단락은 서사 단락만큼 시사평론의 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품 전체를 형식적·내용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는 서사 단락과 유사하다. 다만 결사 단락은 서사 단락에 비해 형식적 틀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 서창에 꿈을씨여 세상스를 심각흐니
꿈속에 노닌인심 공연히 분주흐다
- ▲ 황량침 도두베고 부귀만 심각흐야
국권군권 내여주고 토디인민 불고흐야
욕심만 치우것만 죽어지면 허스로다
칠대신의 몽중스요
- ▲ 은전푼에 풀넌몸이 세도집에 이결흐고
외인의게 아첨흐야 칙주임관 맛보랴고
쥬야분주 흐노라니 익국지심 날수잇나
스환식의 몽중스요
- ▲ 남북촌 출입장에 봉인즉설 흐는말이
군슈주본 되엿다지
몇낫군슈 쇠쓰리는 총리대신이 흐여먹고
몇낫군슈 단식구는 쥬무대신이 손을 쓰니
지방정치 엇지흐며 인지턱용 홀수잇나
군슈들의 몽중스요
- ▲ 궁교빈족 더홀째에 죽는소리 너무마라
즈션스업 허다흐디 슈전로가 되단말가
량던옥토 고루거각 당장헝락 무궁흐나
공슈리 공슈거는 세상사름 일반이라
부가용의 몽중스요

13) 결사 단락은 서사에 비해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서사 단락으로 이미 충분히 시사평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결사 단락은 보충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략)

▲ 일몽을 반쯤씩어 바라보니 혼몽턴디 되엿고나
이꿈을 언제씩어 문명세계 되어볼가¹⁴⁾

㉠ ▲ 동희상에 혼 어부가

면쥬실을 자아내여 그물흐나 미젓스니
도약으로 버리슴고 협약으로 고를내여
한국정희 풍랑중에 이리더리 넓게쳤다

▲ 매국적이 슈달되야 밍렬하게 고기몬다
영미법덕 렬강국에 교섭하던 외부대신
일분부에 혁파하야 즈괴장중 너헛스니
외교권이 걸넛고나

▲ 고기긋흔 더 빅성들 가련하고 측은하다
대한강산 삼천리를 칠대신이 룡락흐네
군용털도 썩앗긴 싸에 인민들이 락루한다
토디권이 걸넛고나

▲ 군더히산 누가히나 일망타진 흐엿스니
몇십년간 교련병영 귀어허디 가श्यक다
군더업는 이나라가 강력인들 어셔날가
군권이 걸넛고나 (하략)¹⁵⁾

㉠은 ‘한바탕 꿈을 꾸고 나서 세상사를 생각하니 세상사 또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는 상황을 서사 단락에서 설정하고, 나머지 단락에는 ‘칠대신’, ‘스환각’, ‘군슈’, ‘부가옹’들이 꾸는 꿈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는 서사 단락에서 설정했던 ‘꿈꾸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몽을 반쯤씩어 바라보니 세상이 혼몽턴지가 되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수미쌍관(首尾雙關)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 역시 그 첫 단락에서 ‘동희상의 혼 어부가 그물흐나를 미져 풍랑중에 넓게치고 낚시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나머지 단락에서는 ‘외교권’, ‘토디권’, ‘군권’등을 낚아 올리는 것처럼 형식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각기 해당되는 비판의 내용을 적절히 적어 내려가고 있다. 위와 같은 ‘서사 단락의 활용’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사평론이 소멸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사평론의 중요한 양식적 원리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특히 서사 단락은 시사평론시를 이루는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전통장르를 수용하는

1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28

1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7

등 중요한 양식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¹⁶⁾

요컨대 모색기는 직설적인 비판으로 일관하던 시사평론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변용시키면서 자신의 양식적 규범을 진단하고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시사평론은 『대한매일신보』의 다른 코너와 차별화 되는 독특한 고유의 성격을 탐색하는 시기였으며, '모색기'라는 용어 역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색기 동안 보이는 시사평론의 여러 형식적인 실험들 자체는 집필진의 의도가 반영된 형식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좋으며 완성되거나 정해진 형식으로 가기 위한 의미의 모색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사평론은 다양한 형식적인 모색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 기법의 모색 자체 즉 시사평론 내부의 문제로 천착하게 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면과 대비하여 시사평론란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시사평론란'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부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색기의 실험들은 다양해서 어느 하나의 형식 모델이 규범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단락간의 유기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라고 요약된다. 특히 '반복구'의 사용이나 '서사 단락의 활용' 등은 앞으로 시사평론의 양식적 토대를 확립하는 중요한 발견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시사평론이 시도한 여러 기법들은 문화 현상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통장르의 어느 한 가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사평론이라는 지면 자체가 요구하는 작동논리에 의해 적절히 차용하고 변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 하다.

16) 이와 관련한 논의는 III-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2) 문예 기법 활용기 - 실험기 I (1908. 1 ~ 1908. 8)

시사평론이 자기형식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를 '문예 기법 활용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동안에 시사평론이 문예적인 기법을 대폭 활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한 노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모색기'의 시사평론이 여타 지면과 변별적으로 자기 지면의 성격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핵심이었다면, 실험기 I 은 '비판'과 '형식적 재미'라는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이제는 시사평론 내부의 문제로 눈을 돌려 자체의 작품성에 관심을 가지고 천착(穿鑿)해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집필진이 실험기 I 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전통장르 및 문예적인 표현인데 이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그 독자층과의 관계 아래에서만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면 집필진이 사용했던 그러한 창작 의식은 독자들의 성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정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험기 I 에서 시사평론은 집필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하고 있는 문예의식과 시사평론 고유의 비판적 성격, 그리고 독자층의 성향 등이 언론매체라는 근대적인 출판물 속에 어우러져 등장하게 된 새로운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예적 기법 활용기 동안의 시사평론은 모색기 동안의 실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양식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거기에 특히 문학적인 표현이나 전통장르의 활용을 대폭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산문이 대다수였던 시사평론 중 대부분이 율문으로 창작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데 문예적인 의식은 이처럼 시사평론이 율문으로 적품의 대다수를 창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율문을 의식적으로 창작해 나간 집필진들은 자연히 전통장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들 가운데 시사평론 안에 내재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해 내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구곡화답 | 문지목 |
| ▲ | 국가홍망 | 숨궤흐니 |
| | 일편강토 | 다풀어도 |
| | 놈의일노 | 징계하면 |
| ▲ | 붉고붉은 | 동산꽃은 |
| | 일곱교의 | 놈흔곳에 |
| | 간밤비에 | 흔들리니 |
- 이급파란 가련흐다
 외채보상 홀슈업네
 독립정신 밧부도다
 변화부귀 몇날인가
 혼동턴디 더세력이
 새도운다

- ▲ 더농부가 삼을매고 이판국을 원망한다
 군용털도 부역하니 쌍밭치고 종되엿네
 일년농스 실업하고 류리개걸 눈물이라 (하략)¹⁷⁾

- ㉠ 동요 빅악산인
- ▲ 종로거리 도라들며 등축이 휘황흔더
 칠팔구세 동즈들이 억기매고 노니면서
 스거리라 노리소래 반공중에 썬나간다
 - ▲ 오빅여년 직힌국권 칠협약에 업서지고
 삼천여리 금슈강산 군용디로 드러가니
 털과궂치 가비아외 송스리손애 썬나갓다
 - ▲ 한각세마 일등문벌 권문세가 출입시에
 초헌람여 혼적업고 벽제쇼러 적막하니
 더량반의 도흔디테 기화바람에 썬나갓다 (하략)¹⁸⁾

위에 예시된 작품 ㉠은 필명에 대한 새로운 시사평론의 기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필명'이란 현존했던 실재 인물의 창작물이라는 구도에서 적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색기에 있었던 일련의 실험들처럼 이 날의 시사평론을 읽을 때 하나의 안내표지처럼 기능하기를 바라는 창작자의 의식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시사평론 전체 단락 앞에 필명을 적음으로써 시사평론이 '한 편의 글'로 읽혀지고 있다는 점이며, 시사평론에 작가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더불어 그의 문예적 창작성 일부에 대한 기대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필명을 기재한 이유는 그 창작자가 확실히 누구라는 점을 알려주는 정보전달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필명이 있음으로 해서 시사평론 한 편이 또 다른 유기성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 형식적인 실험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시각이다. 즉 4·4조의 율문이 필명이 있음으로 해서 작가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사평론이 한 편의 작가가 지은 시(詩)와 같이 읽히게 되는 것이다.

실험기 I 동안 필명이 기재된 것은 총 8편으로 이것이 1908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정 기간에 한 가지의 형식적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2월과 3월은 필명 뿐 아니라 시사평론에 제목을 달고 있는 작품이 무려 13작품이나 되는데 이 역시 실험기 I 동안 2월과 3월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이나 '필명' 등은 시사평

1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2. 7

1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2. 13

론이 또 다른 형식적인 방법을 채택해 나간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뒤에 실험기Ⅱ에서는 이런 방법이 또 다시 변용을 이루어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요컨대 필명이나 제목의 방법은 시사평론 한 편을 창작자의 창작의식이라는 면을 도입하여 하나의 문예작품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일종의 문예 기법의 활용이라는 점이다.

㉔의 작품도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진 작품이다. '종로거리에 등축이 휘황흔데 칠팔구세 동족들이 억기매고 노니면서 노래하는 소리'라는 구도로 각 단락을 엮고 있다. 이 때 '동요'라는 제목은 서사 단락을 의식한 것으로 동요를 부를 만한 나이의 어린이 눈에 비친 세태를 노래로 비판하는 구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동요의 주체가 부를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동요라는 제목은 서사 단락의 연장선상에서 그 상황이 주는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시사평론은 직설적이고 주관적인 비판에서 독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그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적 기법 활용기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다.

- ㉕ ▲ 디도흔폭 벽에걸고 대한산천 구경하니
 슈려하고 웅장함도 동서양에 웃뜸이오
 턴하명기 모헛스니 당시인물 아니날가
- ▲ 턴하민국 평등흐는 더슈단이 몇몇친고
 세계만스 통략방칙 흥중에다 너허눗코
 썩기드려 안나오니 나라근심 엇지흐나
 영웅봉이 놓헛고나
- ▲ 빅만정병 능당흐는 더장략이 몇夕친고
 물을등져 진을치니 오합지졸 강병된다
 밤을시워 쏫차가던 쇼상국이 어디갓노
 장군봉이 놓헛고나 (하략)¹⁹⁾
- ㉖ ▲ 궁벽향촌 란리후로 두견성이 처량홀제
 만단심회 절노나는 청년과부 탄식하니
 구곡간장 다녹는다
- ▲ 출가흔지 몇히랴도 너외정리 미흠흔디
 즐디풍진 니러나셔 동서분쥬 피란타가

1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4. 2

량군종적 업서지니 심리별이 이나닌가
이설음을 엇지홀소

▲ 어제저녁 잠시쑈에 량군안식 더히보니
무슴일노 슈척흔고 나라근심 김헛던가
덩녕헛게 말헛다가 씨고보니 허스로다
이설음을 엇지할소 (하략)²⁰⁾

㉠과 ㉡은 모색기에서 선보였던 서사 단락의 활용이 점차 발달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 단락은 시사평론의 전형적인 양식적 토대를 이루게 됨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실험기 I에서는 단락간의 유기성을 위해 고안된 서사 단락이 그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데 지적할 만한 점은 서사 단락의 다양한 실험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전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며 각각의 전형은 나름대로의 문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의 경우, '디도를 벽에걸고 대한산천을 구경흐면서 당시인물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서술자는 한 곳에 정착하여 눈만 돌려서 '당시인물', '인물정태', '각색인물' 등을 훑어보는 이러한 방법은 마치 카메라를 돌려 주위의 사물들을 포착하는 방식에 가까운데 문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법은 일종의 '거리두기'이며 '평면적 배치'이다. 이러한 거리두기 방법은 시사평론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가령 '저 인물들'이라고 할 때의 '저'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평면화시키는 방식은 시사평론 고유의 성격인 '비판'을 함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 이처럼 시사평론은 더 이상 직설적인 비판이 주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서사 장치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양식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 주제적인 측면에 비판이라는 요소를 개입시키는 역현상을 보여주면서 점차 문학적 색채를 더해 가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예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서사 단락의 전형 가운데 '자탄'의 한 예로, '청년과부'의 심회를 단락별로 기술하면서 시적 화자의 말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태를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탄유형'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인 장치가 일치되면서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게 되자 이러한 유형은 점차 힘을 얻어 작품 양에서의 우세함뿐만 아니라 비판의 대상을 점차 정계일변에서 구습이나 지방의 형편까지도 넓혀가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2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25

되기에 이른다.

그 밖에도 이 시기는 다양한 문학적의 표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 ▲ 어제저녁 동남풍에 줄夕살夕 오던비가
천금보다 더중하고 선약보다 더귀해야
죽던초목 소싱하고 폐헌농스 흙족하니
하늘조화 누가알가
- ▲ 줄夕살夕 오는비가 반갑기도 반갑도다
불과갓치 툇든쌍이 잠시간에 윤택하니
식물장춧 풍족함을 누가야니 깃버홀고
급업홀손 이시군도 이와갓치 쇠신홀까
- ▲ 줄夕살夕 오는비가 신의하고 신괴하다
우로지턱 재를알아 죽던곡식 살너주니
하느님의 호심지덕 사름마다 감사하네
도탄에든 더창싱도 이와갓치 구제홀가 (하략)²¹⁾

예를 들면 '줄줄살살' 등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자주 등장하며, '꽃'이나 '새'와 같은 자연물들을 상징적·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장르의 관습적인 문구들이나 한자성어 혹은 속담까지 도입되면서 시사평론은 한 마디로 모든 문예적 표현들이 총망라되어 혼재(混在)되어 있으면서도 고유의 색을 가진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문예적인 기법들이 자주 사용되던 이유는 그러한 표현들이 독자의 감흥을 촉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내용이었던 시사평론을 독자들에게 감각적으로 읽히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예적인 기법은 시사평론의 향유자들에게 필연적인 선택의 요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19

3) 서사(序詞) 단락 활용기 - 안정기 (1908. 9 ~ 1909. 2)

‘서사 단락 활용기’란 모색기와 실험기 I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는 ‘서사(敍事) 단락’이 시사평론의 주된 형식적 기법으로 부상되어 창작열을 높이고 있는 기간을 이르는 시기를 이른다. 그러므로 서사 단락의 활용이 새로운 형식적인 실험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사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사 기법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서사 단락 활용기를 ‘안정기’라고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시사평론이 『신보』의 한 지면으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기재되면서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해나갔기 때문이며, 둘째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사 단락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실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사평론의 완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안정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이라는 용어가 다소 연구자의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용어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시사평론이 형식적으로 별반의 큰 실험을 접어두고 몇 가지의 양식적인 모델만을 취하여 창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험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묵시적인 호응도가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사평론의 발표지면이 언론매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호되는 양식을 토대로 안정적 게재했을 가능성은 그만큼 농후하다.

안정기의 시사평론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체가 율문으로 창작되고 있는데, 작품의 대부분은 서사단락을 활용하고 있다. 즉 안정기는 앞서의 양식 실험에서 가장 성취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던 서사 단락의 활용을 중심으로 창작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사 단락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는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형식의 문제와 또 작품의 전체적인 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바꿔 말하면 전체의 형식을 매번 고려하지 않고 첫 단락을 어떻게 구상하는가에 따라 작품 전체의 구도가 동시에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 만호장안 적막헌디
오형문무 칠현금을 새줄언저 끝나놋코

몇곡도롤 희롱하니 한국정형 그려넷네
지음홀이 어디가고 식벽들만 빗최인다

- ▲ 첫재줄을 타고보니
서방금성 완연하다 금은동털 더광산은
리익중에 데일인더 외국인을 다내주고
부강키만 헛벼라니 어리석다 한인이여
- ▲ 둘재줄을 타고보니
동방목성 완연하다 목우류마 문들영웅
지금에도 쏘잇는가 란신적즈 횡횡인더
부강키만 헛벼라니 어리석다 한인이여
- ▲ 셋재줄을 타고보니
북방슈성 완연하다 슈지한지 텃텃하다
근리홍년 만컨마는 국민곤난 불계하고
부강키만 헛벼라니 어리석다 한인이여
(중략)
- ▲ 널곱재줄 타고보니
좌편무성 완연하다 무예경징 이시더에
각군더롤 희산하야 국민보호 업셋는더
부강키만 헛벼라니 어리석다 한인이여
- ▲ 헌탄말소 헌탄말소 한국인들 헌탄말소
구미대쥬 더각국도 기명전은 다그러니
위험홀을 무릅쓰고 일심하야 진보하면
필경부강 흐리로다

위 작품은 첫 단락에서 '칠현금에 새 줄을 엮어 골라놓고 몇 곡조를 희롱'하는 상황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단락에서 그 시작을 '~재줄 타고보니 ~가 완연하다'는 구절로 시작하면서 단락간의 형식적 유기성을 확보하게 나가고 있다. 그러나 '칠현금을 탄다'라는 상황은 시사평론을 읽을 때 서정성을 형성하게는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시사평론의 각 단락이 노래의 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서사 단락은 그 정황을 빌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과 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창작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작품의 유기성과 심상을 제공하는 서사 단락의 활용은 시사평론을 시사평론시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사평론시는 서사 단락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 단락은 시적인 성취를 이루는 결정적인 형식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사 단락은 그 기법상 어떤 정황을 빌어오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단락의 전개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시의 유형은 서사 기법에 따라 유형화시킬 때

그 원리가 가장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I-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여기서 그 유형을 간략히 소개하면 열람유형, 예술유형, 탄식유형, 평론유형, 비유유형 등으로 이들 각각은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준거가 무엇인가에 따라 변별되어진다.

- ㉠ ▲ 삼천세계 광활하니 이내혼몸 들곳업다
 구곡간장 불이나고 두줄눈물 피가된다
 술한잔을 마신후에 창마검을 놓히들고
 우주간에 비회하며 허다요물 숲혀보니
 용서홀길 바이업다
 ▲ 데일요물 무엇인가
 왼발에는 인장이오 올흔발에 디도로다
 남산송림 적막흔디 살낭살낭 가는여호
 매국적의 그히골을 제어디서 엇어쓰고
 요사하게 변화하니 이칼흔번 시험홀가
 ▲ 데이요물 무엇인가
 두눈스동즈 씬적이며 긴꼬리를 흔들면서
 썩은나무 구녕속에 들낙달낙 더대망은
 망국대부 그히골을 제어디서 엇어쓰고
 음흉하게 변화하니 이칼흔번 시험홀가²²⁾
- ㉡ ▲ 압뒤동산 록음중에 잠농흔는 녀인들이
썩을싸며 노리하니 곡도마다 스실있다
 ▲ 양잠학교 성립하니 녀즈스무 발달이라
 물리학을 공부하고 경제지술 강구홀제
 외국제도 모방하야 신세계가 되엿스니
 이시디가 어느때뇨
 ▲ 녀즈교육 실시하니 디지력스 능통이라
 몇빅년을 갖쳤다가 활발정신 엇엇슨즉
 침선방적 썩아니라 무슴학문 업슬손가
 이시디가 어느때뇨 (하략)²³⁾
- ㉢ ▲ 궁벽향촌 란리후로 두견성이 처량홀제
 만단심회 절노나는 청년과부 탄식하니
 구곡간장 다녹는다
 ▲ 출가흔지 몇히랴도 니외정리 미흡흔디

2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2. 11

2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1

졸디풍진 니러나셔 동서분주 피란타가
 랑군종적 업셔지니 싱리별이 이아닌가
 이설음을 엇지홀쏘

▲ 어제저녁 잠시꿈에 랑군안식 더히보니
 무슴일노 슈척흔고 나라근심 깃헛던가
 덩녕흔게 말흐다가 씨고보니 허스로다
 이설음을 엇지할쏘 (하략)²⁴⁾

㉔ ▲ 큰길거리 장석우혜 봉두돌빈 팔구인이
 츠레업시 안꼬누어 더희끼리 슈작흐니
 드를말이 허다흐다

▲ 지동룽에 횡장죽은 완고랑반 이아닌가
 기화시터 몰낫던지 교만티도 그져잇셔
 갈지즈로 거러가니 그테격이 데일뵈데

▲ 인력거에 권연문이 경박소년 이아닌가
 학문스상 일호업고 쥬식장에 출입흐며
 전고후침 양양흐니 그테격이 데일뵈데 (하략)²⁵⁾

㉕ ▲ 남산석벽 험준흔디 왕리흐는 더박쥐가
 낮에쥐요 밤에새로 번복변화 무상흐다
 한국인종 비교흐면 일호반덤 틀님업시
 더박쥐와 일반일세

▲ 황실중에 세잇스면 황실쓰라 춤신되고
 외인에게 세잇스면 외인쓰라 역적된다
 춤신역적 불계흐고 일신부귀 탐을내니
 더박쥐가 가중이오

▲ 무슴실직 잇슬때는 단발양복 흐엿다가
 벼술흔번 갈닌후에 금옥관즈 쏘붓친다
 기화흐고 슈구키를 시세쓰라 변화흐니
 더박쥐가 가중이오 (하략)²⁶⁾

가령, ㉔은 '열람유형'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삼천세계에 내 혼 몸 둘곳 업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주간에 비회하며 술흔잔을 마신후에 검을 놓히들고 허다요물을 살펴보게 되는'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국형편을 살펴보거나 열람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단락을 이끌어 가는 방식

2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25

2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31

26)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0. 3

이 열람유형인 것이다. 위 작품에서도 서사 단락 이후의 단락들은 '데일요물 무엇인가', '데이요물 무엇인가' 하면서 그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은 '예술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서사 단락에서 '잠농호는 녀인들이 뽕을 짜며 노리하는' 상황을 제시 한 후 나머지 단락에서 '여성'을 주제로 하는 비판으로 단락을 전개시켜가고 있다. ㉡은 '탄식유형'인데 서사 단락에 시적 화자를 등장시키고 나머지 단락에는 그 시적 화자가 직접 탄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도 '청년과부'가 시적 화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 단락을 통해서 '출가한 몇히 안되어 피란타가 너외정리가 미흡할 때 랑군 종적 업서져서 싱리별'을 하게 된 청년과부가 '어제저녁 잠시꿈에 나라근심에 수척해진 낭군을 만나게 되었건만 씨고보니 허사'였다는 등 시적 화자의 심회가 구구절절 적나라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드러나고 있다. ㉢은 '평론유형'의 한 작품으로서 '대화'를 강하게 의식하여 누구로부터 듣거나 혹은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전제하고 창작된 유형이다. '큰길 장석우혜 봉두돌빈 팔구인이 츠레업시 안꼬누어 더희씨리 슈작'하는 광경을 서사 단락에서 제시한 후 그들의 틈에 독자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머지 단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람의 말은 '그테격이 데일뵈데'로 끝을 맺고 있다. ㉣은 '비유유형'이다. '낮에는 쥐로 밤에는 새로 번복변화 무상헌 한국인종을 험준한 남산석벽을 왕리호는 박쥐'로 비유하면서 나머지 단락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과연 그런 박쥐와 같은가를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 '일신부귀를 탐내서 충신역적 불계호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개화와 수구를 시세에 따라 변하는 사람' 등을 박쥐로 비유하면서 적절하게 비판의 대상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다.

위의 유형들은 더 세분화 될 수도 있고,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시사평론의 서사 단락은 이러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형식적인 틀을 대폭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유형마다 나름대로의 문학성을 견지하게 되면서 서사 단락은 시사평론의 중요한 양식적 원리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1908년 9월에서 1902년 2월 사이에 가장 활발한 창작열을 보여주는 서사 단락 활용 방법 기법은 시사평론이 소멸하는 날까지 그 운명을 함께 하게 된다. 그러

나 벌써 오랜 기간의 창작으로 인해 초기의 신선함을 잃어갔다는 사실은 서사 기법 역시 그 자체로 극복해야 할 하나의 매너리즘이었던 것이다. 이는 사사 단락이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변모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서사 단락 역시 매일매일 게재되는 시사 평론의 양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험기Ⅱ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실험의 양상은 이러한 극복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4) 신문 지면(欄) 활용기 - 실험기Ⅱ (1909. 3 ~ 1910. 4)

실험기Ⅰ이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시사평론의 양식적 준거를 찾아가고 있다면 실험기Ⅱ에서 주류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한 마디로 '신문 지면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시사평론란 이외에도 논설, 잡보, 사조, 광고 등의 지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1909년 3월 이후로는 시사평론이 이들 지면과 유사한 형태로 창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험기Ⅰ에서 창작자와 독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시사평론의 공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은 원리로 보인다. 즉 신문의 글쓰기 방법은 기존에는 익숙지 않은 글쓰기였지만 독립신문의 창간 이래 계속해서 많은 신문 매체가 출판되었고 그에 따라 독자층도 어느 정도 신문의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더구나 신문의 다른 지면을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또 다른 측면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의 글쓰기가 익숙해지기는 했으나, 틀림없이 아직은 참신한 편집과 글쓰기의 방식인 바 결국 신문은 독자로 하여금 익숙함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참신함까지 더해져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던 양식이었던 셈이다.

다음의 작품들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시사평론란 이외의 다른 지면을 응용하여 창작된 작품들이다.

- ㉠ ▲ 법국 에코신문에 게재한 것
일본인은 남주가나면 정탐노릇할 괴질과 녀주가나면 창기노릇할 괴질만 잇다하여도 과격헌말이 아니로다 이 스실로써 중험하여 보건디 지금 일본의 성공헌바는 이두가지 괴질노 인하여 되엿도다 일본사람은 이 두가지 괴질을 국가에 밋치는고로 이것이 곧 국민의 덕이니 그덕으로써 일본의 국운을 룡성케 하였스즉 이것을 견고하여 가히 췌여 내지못할 괴초우혜 특별히 세웁도다. (중략) 이여러가지 스실을 가지고 보와도 일본의 남주는 정탐직의 괴질을 가지고 녀주는 매음녀의 괴질을 가지거슨 황연히 알것이로다²⁷⁾

- ㉡ ▲ 류힝병 예방약 특별 대광고
▲ 본보에서 류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년경험으로 정의벽사단을 제조하여 특별령사가로 대발매호오니 전국너 동포들은 급속히 왕림호와 이약을 사시오

2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2. 8

(효험)

부귀열에 발광나서 국가를 폭리먹는증세
외인의게 아첨하여 제민족을 잔학하는증세
마귀를 신앙하여 국조를 통멸하는증세

.....

이약을 장복하시면 이왕병든자는 쾌차홀터이오 병들지 아니흔자는
그못된병에 걸닐념려가 업스오니 이천만 형데즈미는
유병무병을 물론하고 일제히 사다잡슈시오 정의벽사단을²⁸⁾

- ㉞ ▲ 지난겨울 밍렬한 바람에 병드러던 오얏나무가 갑자기 호탕한 봄바
람을 쏘이리 실□이되어 쓰러졌는데 그나무스그늘아리 었던부인 혼
나히 머리를 폭숙이고안져 혼숨을 드리쉬고 내쉬더니 즈기의 즈부라
고도 흘말하고 즈기의 식앗이라고도 흘만한 미인을 향햏야 「이
말을홀수도 업고 아니홀수도 업고나 □ 닥어 안져라 네게 혼마더 흘
말있다」 「네 무슨말씀이야요」 「오냐 요시 각신문을 너도 보앗지
우리가문에 추흔소리가 하도랑자하니 대감이 일본으로 건너가시든지
네가 잠간 어더로 가서잇든지햏여야지 신문상에 집안흥이 쓴칠시가
업시나니 진정 보기슬더라」 (중략) 박첨자 왈—완악하고 용렬한 이자
가 사름의 횡위는 일호도 아니하고 즈승의 횡위보다도 더흉측하니
턴도가 었지 무심햏리오²⁹⁾

㉞은 '법국 에코신문에 게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시사평론인데 그 형식과 내용이 『대한매일신보』 1면에 위치한 '사설(혹은 논설)'의 형태와 흡사하다. '일본인은 남주가 나면 정탐노릇할 기질과 녀주가나면 창기노릇할 기질만 있다 하여도 과격햏말이 아니로다'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전체적인 성격이 기존의 시사평론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많다. 특정 인물이나 유형화된 비판의 대상이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며 단락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탐객'과 '매음'에 대한 원인을 일본 사람에게로 돌리면서 일제에 반격을 가하는 글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글이 시사평론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시사평론란의 지면의 성격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사평론은 문예적인 창작 이외에도 그 지면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형태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력을 지닌 양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㉞은 신문의 광고처럼 쓰여진 시사평론이다. 이 날의 시사평론이 '광고'와 유사

2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4. 16

2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3. 9

하다는 사실은 실제 광고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서울남대문안제성당터약방

- 요시이 시로발명헌
- 옥정수라흐나는약은
얼골 터지는데와 입술터지는데와 손등터지는데 신효한약이오
- 미화점설만이라흐는약은 남녀간 모든창병에 신효무쌍한 약이니
창병잇는사람은 오리고싱마시고 속히러림하시오
증상잡는약과 모든병에 신기한약이 만히잇스니 러림문의하시오³⁰⁾

위의 예문은 1910년 1월 23일자 광고 가운데 ‘약방 광고’의 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먼저 ‘광고제목’이 나와 있고 다음으로 ‘약을 복용할 사람’, ‘약의 이름과 그 효험’이 소개되고 있고 다음은 ‘러림하여 문의하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구성방식은 ㉔의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류형병 예방약 특별 대광고’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 다음은 ‘정의벽사단’이라는 ‘약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부귀열에 발광나서 국가를 프라먹는 증세’와 같이 ‘새로 발명한 약의 효험’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다잡슈시오’ 하면서 ‘문의’나 ‘방문’을 요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광고의 형식에 문예적인 기교를 첨가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설정자체는 신문의 한 지면이었던 ‘광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당시의 광고는 출판문화와 함께 떠오른 것으로 당대인들에게는 신문의 독자들만이 익숙히 알 수 있었던 글쓰기의 한 방법이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시사평론은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독자들에게 친숙한 것들을 시사평론 안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그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 그 편집이 화려해지고 분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시사평론이 왜 광고를 자기 양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란 역시 상업적인 관심에서 멀어질 수 없으므로 당대에 대중에게 유행하는 것들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원리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사평론은 ‘사조’라던가 ‘편피괴담’ 등 다양한 신문의 지면들을 시사

3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광고 1910. 1. 23

평론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자체내의 다양한 양식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 신문의 여러 지면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실험기 II에서는 또 다른 형식적 실험들을 계속 더해 가면서 흥미로운 작품을 대거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국문가 장천성
- ▲ 가장귀훈 대한청년 거름거름 전진호세
고성환난 무릅써서 구름갓치 싸힌분침
눈과갓치 쓰러내세
 - ▲ 나라일을 호는디는 너와나를 막론호고
노래됨만 면호고서 누려보세
자유부락 이천만인 호가지로
 - ▲ 다라느는 이세월을 디더홀자 뉘잇스며
도탄중에 싸진빅성 무호호자 어디잇나³¹⁾
- ㉡ ▲ 춘화풍류 호시절에 모든경치 유람코져
어느산곡 도라느니 고루거각 황량호디
우름소리 량자호다 급히가셔 차져본즉
그집주인 잠만자고 몇몇아히 모혀안져
양탄탄식 통곡일세 그리유를 무려보자
(츄레더로)
- ▲ 이으히야 말드러라 무슴일노 통국이나
몇빅년을 상전호던 토디가옥 우리산업
건넌집의 더쥬인이 간결호여 준다더니
근일동정 숲혀본즉 아조제것 만들냐고
별반운동 호는모양 이를슬허 통곡이오
(그럿켓다) (하략)³²⁾
- ㉢ ▲ 제국병민 구제코져 부국(나라를 붓들다)으로 위군호고
보토(강토를 보전호는)력을 가입호야 데일단을 비져내니
부국보토 단이로다
이활약을 먹고보면 국가강토 다일코져 막다른골 죽게된다
희싱키를 도모호야 걸쳐봉싱 비결이라 희망력이 여긔있다
(중략)
- ▲ 교육병가 소싱코져 육영(영지를 교육)으로 위군호고
양긔지(긔지를 비양호는 지료)를 가입하야 데삼단을 비져내니
육영향긔 단이로다
이환약을 먹고보면 영웅렬스 본을밧고 엄단긔개 절노나겨

31)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4. 5 (굵은 글씨는 필자)

3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4. 30

단스업을 혼연후에 명전전츄 흐라흐니 희망심이 여긔있다 (하략)³³⁾

㉠은 '국문가'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국문가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작품의 나머지 단락들은 그 첫 글자를 '가,나,다……'의 순서에 위해서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앞 글자를 맞추어 말하는 놀이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시사평론은 당대의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작품의 단락을 이끌어 가는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은 시사평론을 읽는 독자들에게서 기대되는 반응을 괄호 안에 넣어 마치 판소리의 추임새와 같은 효과를 자아내는 방식이다. '몇몇아히 모혀안져 양턴탄식 통곡일세 그리유를 무러보자'라고 한 단락이 끝나면 그 바로 뒤에 '(차례대로)'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독자가 차례대로 물어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또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건넌집의 주인이 토디가옥 우리산업을 간결하여 준다는 근일동정'을 탄식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그렇겠다)'라는 말을 넣어서 서술자의 비판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시사평론은 그 형식적인 실험을 해 나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문구를 삽입 할 때, 그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각 단락이 어디서 끝나건 간에 괄호 안의 문구는 동일한 곳에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읽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은 어려운 단어나 중의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밑에 괄호를 열고 그 뜻을 명시하는 기법인데, 이는 신조어가 많이 쓰인 시사평론에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한자가 없이 사용되는 국문 어휘의 뜻을 다른 한자어인 것처럼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바뀌서 풀이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참신함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새로운 시사평론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시사평론은 문예적인 기법뿐만이 아니라 '놀이', '광고' 등 당대에 유행한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용하여 시사평론이라는 '비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개방적인 양식이었다.

3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9. 5. 5

5) 쇠퇴기 (1910. 5 ~ 1910. 8)

1910년 4월까지의 발간된 날짜마다 게재되었던 시사평론이 5월부터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1910년 5월의 경우, 총 발간부수 25회 중 시사평론은 단 13회만 게재되어 있고 그 길이가 매우 짧아지는 등 시사평론란은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사평론의 전체 분량이 줄어드는 시기는 엄밀히 따지면 실험기Ⅱ에 해당되는 1909년 8월 즈음으로, 보통 2면의 두 단 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점차 한 단 반이나 한 단으로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락의 수로 따져 보아도 8~10개였던 데서 2~6개로 훨씬 그 수가 적어지는 데다가 각 단락의 길이 또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호로살이세계>의 전문(全文)이다.

- ▲ 호로살이세계
- ▲ 반공중에 등등써서 엇지더리 분주홀고
호로살이 네신세가 죠싱모스 가턴홀다
- ▲ 함몰될줄 모르고서 쎄로지어 왕리홀제
외복우에 침버타가 사름에게 박멸되면
다시형제 업스리니 호로살이 세계로다
- ▲ 등잔스불에 달너들며 불변동서 분주홀니
일진땡풍 혼번불면 품비박산 된연후에
거진홀곳 업스리니 호로살이 세계로다
- ▲ 녀름흔철 당홀여서 네무리가 발동홀나
장구홀지 못홀리라 가을홀놀 찬비오면
종즈인물 느을소냐 호로살이 세계로다
- ▲ 네형태를 말홀자면 적고적은 미물이나
너의무리 번성홀야 눈못쓰게 방해홀니
엇지그져 문단말가 호로살이 세계로다
- ▲ 인성뵈년 쏜결이오 부귀빈천 이러홀다
세상스가 잠간인중 웅망성쇠 더욱썰너
조금지체 못홀리니 호로살이 세계로다³⁴⁾

위 작품은 『대한매일신보』가 폐간되기 약 한 달 전인 1910년 7월 13일에 창작된 작품이다. ‘쇠퇴기’ 시사평론의 특징은 이처럼 작품의 대다수에 제목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 서사 단락이 작품 전체의 구도를 보여준다면 제목은 작품의 비

3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10. 7. 13

판의 시각이나 심상을 잘 드러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호로살이세계>라는 작품은 '째로지어 왕리하며 적고적은 미물인 호로살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어느 때에 박멸될지 모른다'고 함으로써 흔들리는 '국가운명을 위태롭게 한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사평론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종전만큼 활발한 창작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첫째 시사평론 본연의 기능인 집필진의 주관적이며 직설적인 비판의 기능을 하기에는 형식과 표현에 대한 부분에 너무 공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 둘째 매너리즘의 극복을 위해 도입되어 시사평론시의 양식을 주도할 만큼 인기가 높았던 서사 단락 기법이 또 다시 극복해야 할 매너리즘으로 떠오르면서 실험기Ⅱ로 돌입하였으나, 그 결과물을 얻기 전에 『대한매일신보』가 폐간되고 말았다는 점, 셋째 『대한매일신보』의 면별 편집을 살펴본 결과 '잡보'나 '광고'에 비하여 문예지면이었던 '소설'이나 '사조'란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시사평론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사평론은 『대한매일신보』의 한 지면으로서 탄생하여 그 초기에는 지면을 성격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글쓰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점차 창작자의 의식이 시사평론 내부의 형식문제로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감에 따라 하나의 문예란으로서 성숙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예화는 집필진이 시사평론을 하나의 문예작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는 내용과 형식이 동시에 어우러지게 하는 수준 높은 시(詩)에 대한 창작열을 불러일으키다가 급기야는 자기만족적인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는 지면이 되기에 이른다. 언론매체의 특성상 시사평론은 독자와 창작자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기 개척의 길을 항상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부분에 대한 성취도나 참신함에 대한 관심이 집필진의 주관적인 목소리나 자기 논리를 설파하는 부분보다 점차 우세해지면서 문학적으로나 새로운 문학 양식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성과였을지 모르나 시사평론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시사평론은 '시사단평'으로 축소되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걷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사평론의 형식은 처음에는 평론을 위해 기법을 빌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 점차 후기로 갈수록 용기에 대한 구속력이 강해지면서 그 용기에 주제적인 측면으로 비판이 내재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사평

론란은 그 자체 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향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시사평론란에서의 다양한 기법 도입은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시사평론란의 인기를 높이고 새로운 문학의 양식을 생산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이면에는 시사평론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우리 만큼의 역기능이 동시에 수반되었던 것이다.

2. 시사평론 詩의 형식적 특성과 작품의 유형분류

시사평론이 모색기와 실험기 I 을 통해 여러 가지 형식적인 틀을 마련하는 동안에 얻은 소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서사 단락의 활용법이었다. 서사 단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작자나 독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의 측면에서는 서사단락을 활용하면 시사평론 전체를 창작하는데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창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효용성이 지대했으며, 독자의 경우는 시사평론의 단조로움이 매번 새로운 서사 단락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잘 들어맞는 기법이었다.

이러한 '서사 단락'은 안정기에 가장 활발히 창작되고는 있으나 이미 모색기에서 그 대강의 형식적인 규범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시사평론이 쇠퇴하여 소멸하는 날까지 꾸준히 사용되면서 시사평론의 양식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시사평론시'가 얼마간의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했다고 해서 '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이 서사 기법의 활용 안에서 그 작품의 성격이 변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사 단락은 매우 중요한 양식적 원리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시사평론시가 시사평론란을 문예적인 지면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읽는 시'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서사 단락을 활용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시사평론'의 모든 작품이 '시사평론시'는 아니다. 시사평론이라는 신문의 지면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예적인 의식이 가미된 창작물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사평론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사평론의 모든 단락을 하나로 묶어 주는 유기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이라야 한다. 물론 잡가 등 전통장르의 경우 악곡의 노랫말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유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악곡 위에 놓여지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사평론은 그러한 음악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처음부터 문예적인 지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사평론란에 있는 모든 작품을 '시사평론'이라 할 망정 시사평론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평론시'란 적어도 그 날의 시사평론 전체단락이 하나의 통일성 있는 문예의식 하에 놓여져야 하며, 울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³⁵⁾는 최소한의

35) 비교적 뚜렷이 감지될 수 있는 음운적 질서에 의해 어느 정도의 산술적 측정

전체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시사평론을 시로 구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사평론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서사 단락의 활용'이었다.

'서사 단락'이란 시사평론 전체 단락 가운데 맨 앞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각 연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내용적으로 작품 전체의 구도와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정서적인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사 단락이 어떤 틀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작품 전체가 완결성을 갖추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시상(詩想)의 변화를 가져오며, 단락을 이끌어 가는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사 단락이 시사평론시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얻어진 또 하나의 효과는 각 단락의 병렬적인 배치이다. 초기의 시사평론은 각 단락마다 각기 다른 비판의 대상을 놓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가령 첫 단락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풍속에 대한 비판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비판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사 단락의 도입은 전체 단락을 서사 단락의 테두리 안에서 배치시키는 구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은 그 범위 안에서 등가적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서사 단락이 활용되면서 시사평론은 직정(直情)적인 표현이 우회적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전통장르의 관습적인 표현들을 적극 차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판과 비판 대상의 간격에 거리를 두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³⁶⁾ 그러나 더 이상 직설적이지 않은 시사평론이라도 여전히 비판의 수위가 낮아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문학적인 표현에서 오는 정서가 비판의 시각과 어우러져 그 강도를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사평론시는 비판할 내용이나 대상과 어울리는 서사 단락을 고안하고 또 그것에 시사평론의 각 단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꾸준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단의 발화군을 율문, 그러한 질서나 산술적 측정 가능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자료군을 산문이고 부른다.……모든 시적 자료는 율문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시란 곧 율문의 문학적 사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99. pp.38-39.)

36) 유형비판기의 작품들은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말미암아 허구적인 화자를 내세울 수 있었다. (국어국문학회, 『가사 연구』, 태학사, 1998. p.531.)

히 창작열을 올리고 있으며, 거기서 오는 정서적 이끌림까지도 그들의 비판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평론시의 서사 단락은 양적으로 매우 많은데 그것들은 몇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서사 단락의 유형화는 마구 흩어져 있는 시사평론시의 양식의 내부를 좀더 체계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사 단락의 유형화는 각 단락에 사용된 반복구나 단락을 이끌어 가는 기법까지 짐작이 가능하게 할 정도로 시사평론시의 형식적 완성에 중요한 준거가 된다.

서사 단락은 그 제시하는 상황과 나머지 단락을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⁷⁾

- ① 열람유형 : 서술자가 시적 화자 내부 문제를 관찰.
- ② 예술유형 : 당대 유행하는 예술장르의 차용.
- ③ 탄식유형 : 작품에 명시된 시적 화자가 독백조로 말함.
- ④ 평론유형 : 상대방이 들을 것을 강하게 전제하고 말함.
- ⑤ 비유유형 : 생활주변의 사물에 빗대어 비판..

위의 구분은 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즉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단락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며 반복구나 시적인 정서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첫째 '열람유형'은 작가가 설정해 놓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파노라마처럼 그 열거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때 시적 화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서술자는 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에 명시되지 않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둘러보면서 대상들을 평면화시키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하여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열람유형은 다시 '인물열람, 당시형편, 살핌, 그림·지도, 바둑·화투, 거울' 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³⁸⁾

37) 필자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서사 단락의 유형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으나 위에 제시된 다섯 가지 유형은 양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며, 무엇보다도 시사평론시의 양식 특성과 원리를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유형들이므로 위의 유형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 ▲ 시국인물 열람하니
 렴치업는 더힘위가 가중흔일 허다하다
- ▲ 신협약을 성립하고 만고대공 일운드시
 혼턴세력 도득해야 요두전목 횡횡하며
 은스금을 운동해야 십만환을 싸먹으니
더대신이 가중이요
- ▲ 구차하게 가르야 금관즈만 돌고보면
 직상이라 칭하고 참판턱호 혁혁하다
 절을아니 한다고 거만하게 시비하니
가지상이 가중탁이요
- ▲ 사회상에 출입하면
 국가스상이 잇는다시 늬더하여 언론하나
 심스힘위 불작시면 비루하기 한량업다
 권문세가 련락해야 벼슬운동 비밀이니
가지스가 가중이요³⁹⁾
- ㉡ ▲ 당시형편 숲혀본즉 풍운궤치 변천하야
 순환번복 무상하니 세상스롤 난측이라⁴⁰⁾
- ㉢ 립공
- ▲ 삼천세계 광활하나 이내흔몸 둘곳업다
 구곡간장 불이나고 두줄눈물 피가된다
 술흔잔을 마신후에 참마검을 놓히들고
 우주간에 비회하며 허다요물 숲혀보니
용서홀길 바이업다
- ▲ 데일요물 무엇인가
 왼발에는 인장이요 올흔발에 디도로다
 남산송림 적막흔디 살낭살낭 가는여호
 매국적의 그희골을 제어디서 엇어쓰고
 요사하게 변화하니 이칼흔번 시험홀가
- ▲ 데이요물 무엇인가
 두눈스동즈 씬적이며 긴꼬리를 흔들면서
 썩은나무 구녕속에 들낙달낙 더대망은
 망국대부 그희골을 제어디서 엇어쓰고
 음흉하게 변화하니 이칼흔번 시험홀가⁴¹⁾

38) 역사의 발전방향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추락하고 마는 당시인물과 당시 세태를 만화경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면에서 잡가의 사설과 유사하다.

3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2. 15

4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2

41)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2. 11

- ㉔ ▲ 일등화공 홀노안져 시세형편 심각타가
긴헨숨을 혼번쉬고 황모필을 급히써여
인정물티 그려내니 팔텃병풍 황홀하다⁴²⁾
- ▲ 데일폭을 그려내니 정부과가 완연하다
환희풍과 험헌일 구제홀이 누구인고
너각제공 이야닌가 창심침륜 불계하고
키틀기만 닷투다가 복선되면 엇지홀쏘
위터하기 일반일세
- ▲ 데이촉을 그려내니 각사회가 완연하다
부패홀손 이종속을 기량홀이 누구인고
유지제공 이야닌가 일신단테 아니하고
헛된명예 구하다가 늡의조쇼 엇지홀쏘
위터하기 일반일세
- ㉕ ▲ 붉은촉불 화투판에 성패득실 무수하니
시국형편 흡스하고 인정물티 가관일세
- ▲ 송학놉히 우는곳에 원로대신 안젓고나
국은은 망극하고 이민직칙 중대헌디
슈슈방관 웬일인가 아래손을 잘숯히지
- ▲ 단풍스슴 썩는곳에 너각대신 나왔스니
엄동설한 찬바람에 무슴운치 잇슬손가
매관매작 더지물이 외인접디에 판이나고
당시세력 감손하니 손속점점 맑어졌다
- ▲ 공산에 썩기력이 동포형데 이야닌가
만리라도 줄을지어 봄과갈노 왕리하며
일심합력 밍세햐야 단테력이 되엿스나
나라권세 일헛스니 외슈질에 속지말게⁴³⁾
- ㉖ ▲ 심령거울 놉히들고 시국인물 빗취보니
국스위급 불고하고 대신상만 보호흔
구구티도 부패물이 허다하다⁴⁴⁾

각각의 유형을 이르는 명칭은 작품 속에 명기된 어휘를 따라 명명한 것이다. 위의 작품들은 각각 ‘인물열람, 당시형편, 살핌, 그림, 화투판, 거울,’에 해당되는 작품인데 이들 모두는 둘러보는 방식을 전제로 쓰여진 것들이므로 ‘열람’이라는 단어를 한 유형의 이름으로 일반화시킨 것이다. ‘열람’에는 주로 인물 열람이 해당된

4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15

4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2. 12

4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2. 19

다. ㉑은 '시국인물의 행위를 열람하는 것'으로서 다른 단락에는 '대신, 가지상' 등의 '렘치업논' 인물들을 평면화시키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열람'의 비판대상은 주로 '인물'로서 이러한 성격은 시사평론란이 애초에 '잡보' 기사에 오른 인물들을 비판하던 것에서 비롯된다. 다만 서사 단락이 활용되면서부터는 서사 단락이 제시하고 있는 구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등가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를 뿐이다. '열람유형'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 양적으로 우세한데 이것은 시사평론이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실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㉒은 '열람유형' 가운데 '당시형편'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㉑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오는 단락들에 '당시의 형편'을 등가화시켜서 배치시키고 있다. 이 작품이 '열람'과 다른 점은 '인물중심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㉓은 '살핌'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삼천세계는 광활하나 이내 혼 몸은 둘 곳이 업어 술을 마신 후에 검을 놓히 들고 우주를 비회하며 허다요물을 숲혀본다'는 상황의 서사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락은 그러한 서사 단락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데일요물', '데이요물' 등이 차례대로 드러나고 있다. ㉔ 역시 서술자는 그림을 그리는 정적인 서술자로서 '일등화공이 홀로안져 시세형편을 싱각타가 황모필을 썩여 팔텃병풍을 그려내니 황홀하다'라는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다음 단락은 병풍의 '데일푹-정부과', '데이푹-각사회' 등 순서대로 비판의 대상들을 나열해 나가고 있다. ㉕은 화투판 주변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투장 하나 하나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비판의 대상들을 적절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진행하고 있다. '송학놓히 우논곳에 원로대신', '단풍스슴 썩논곳에 너각대신', '공산의 썩기력이 동포형데'와 같이 각기 인물들이 자아내는 판국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㉖은 '심령거울 놓히들고 시국인물 빗취보는' 방식인데 눈으로 직접 살피거나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는 점에서 대상들을 '평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거울'은 시사평론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시사평론이 단락 별로 비판의 대상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이용한 구도가 자주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된다.

열람유형의 서술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국형편·각색인물의 형편을 열람하므로 그 자신은 매우 정적이다. 즉 서술자는 관찰자가 되어 자신의 시선만 주변으

로 돌릴 뿐 서술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그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가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저 돌아가기만 하는 생활정서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열람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은 단락 구성을 주축으로 하는 시사평론란을 유기성 있게 묶어주면서 전체를 하나의 구도 안에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은 '열람유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위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가진 작품들이다. 즉 서술자가 서술자 외부의 것들을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열람'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작품들은 '열람'에 비하여 서술자가 비교적 '동적'이다.

- ㉠ ▲ 각디방을 유람하니
인민들과 관리중에 병업논자 회소하다
내의술이 용렬하니 시험하야 집중하고
동침헌디 급히써여 덩문혈에 도와보세
- ▲ 스족가를 도라드니 량반들이 모혀안져
즈데교육 심각업고 아모조상 즈손이라
아모편식 문벌이나 평론키로 분주하니
덩문침을 도와볼짜
- ▲ 각향교를 도라드니 김지리지 지임들은
폐포파립 하고안져 주식이나 닷토면서
제관차덤 방매키로 일을 습아 협잡하니
덩문침을 도와볼짜 (하략)⁴⁵⁾

- ㉡ ▲ 더남산에 밧출갈고 도흔곡식 심엇더니
가라지만 란만하다 오늘정형 불작시면
현인군즈 간디업고 란식적즈 종횡하니
털공장을 설시후에 쇠스슬을 만히썩아
모든죄인 포박호세
- ▲ 평양관찰 히슬새에 민지륙탈 훌썩더러
풍경궁의 건축비로 구십만환 건물하고
히외국에 도망하야 비솥으로 세웁홀제
황척스지 거절하니 국민적즈 이아닌가
민영철을 포박하고
- ▲ 동리부운 갈닌후에 의식걱정 쏘잇던가
되지못흔 버러지가 장판방에 모로권다

4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9. 2

호패설시 더흥계는 월남에도 업는법을
 계가몬져 언의하니 국민적즈 이아닌가
김교현을 포박하고⁴⁶⁾

㉔ ▲ 정계소식 엇더흔고 측량기계 손에들고
 만경풍랑 위험중에 산천고항 측량한다⁴⁷⁾

㉔은 서술자가 각 '지방을 유람'하면서 병들어 있는 사회의 각 부분에 '침을 놓는' 행동을 바탕으로 기술된 작품이다. 서술자가 단지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침을 놓는 행위는, 열람의 첫 번째 유형에서 관찰자를 정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당시형편과 서술자와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방식과 대별된다. 문학적으로는 '열람유형'의 다소 허무하면서도 비관적이라면 열람유형의 또 다른 방식인 위의 작품들은 비교적 생동감이 넘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㉔은 바로 그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는 예로서 '남산에 털공장을 설시한 후 쇠스슬을 만히뽑아 모든죄인을 포박하자'라고 시작하여 나머지 단락에서는 포박해야 하는 죄인들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포박'이란 기본적으로 '유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등의 동적인 행동이 연상되는 어휘인데 이와 같은 행위의 묘사가 작품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㉔ 역시 '측량기계를 손에들고 산천고항을 측정'하는 모습을 통해 '정계소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그것을 재본다는 점에서 '유람'과 같은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예술유형'은 당대에 유행하는 예술장르를 활용하여 단락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서, 독자에서 읽히는 방식으로 밖에 다가갈 수 없는 신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에 유행하는 예술장르와 접목시킴으로써, 눈으로 읽기는 하되 수용의 측면에서는 '노래'나 '춤' 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법이다. 전통장르의 관습적인 표현이나 당대 크게 유행하는 문화현상을 시사평론사와 접목시키는 것은 시사평론의 주요 기능인 비판을 독자들에게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는 예술의 향유 공간을 시의 내부에 끌어들임으로써 '상황' 자체에서 오는 익숙함을 이용하여 시사평론시가 '공감'될 수 있도록 창작된 방식이 바로 '예술유형'인 것이다.

46)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1. 7

4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9

예술유형은 다시 '극, 곡조'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 완고비덤고

- ▲ 동방이 붉아오고
계명성이 놉흔곳에 태상로군 좌명흐샤
기명시디에 완고비를 낫낫치덤고한다
- ▲ 명현이니 춘절이니 빅골선조 빙자흐고
문벌만 즈랑흐니 음덕이 흑 잇던가
가중흐다 더량반들 게왓느냐 예 등디흐엿쇼
- ▲ 도포힝의 썰쳐넙고 두무릅을 밧씩쓸어
슈신제가 말만흐나 실디힝실 바이업다
가쇼롭다 더학자들 게왓느냐 예 등디흐엿쇼
- ▲ 수호잔촌 학당안에 강미돈을 싱애삼아
턴황씨 디황씨로 늬의즈데 병드리니
가련흐다 더학구들 게왓느냐 예 등디하엿쇼⁴⁸⁾

㉡ 도소쥬를 ㄱ득부어

- ▲ 새봄맛자 취케먹고 류성기를 새로틀어
넛날곡도 다브리고 식곡도를 지어내여
멧날적적 흐던츠에 오륙편을 알외느니
시한국에 새동포는 새정신에 드리보쇼
- ▲ 흔고동을 틀고나니 청년노래 도흘시고
락락창창 더쇼나무 구름밧기 소사잇네
너도또흔 초년에는 무한풍상 격근후에
오늘날에 특립히다 어화한국 청년들아
더와긋치 비양흐쇼
- ▲ 또흔고동 틀고나니 지스노래 도흘시고
측측고고 더탑들은 반공중에 소섯고나
너도전일 험한돌노 무흔련마 밧은후에
오늘선과 이아닌가 어화한국 지스들아
더와긋치 단테되쇼⁴⁹⁾

㉢ 압뒤동산 록음중에 잠농흐는 녀인들이

- ▲ 쑥을싸며 노리흐나 곡도마다 스실잇다
- ▲ 양잠학교 성립흐니 녀즈스무 발달이라
물리학을 공부흐고 경제지술 강구홀제
외국제도 모방흐야 신세계가 되엿스니
이시디가 어느째뇨
- ▲ 녀즈교육 실시흐니 디지력스 능통이라

4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7. 12. 29

4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1. 5

몇퉁년을 갖췄다가 활발정신 엇엇스즉
침선방적 쏘아니라 무슴학문 업슬손가
이시더가 어느째뇨

▲ 안방속에 드러안져 의식에만 종스타가
즈유권을 엇엇스니 대장부와 동등이라
시학문만 성취하면 무슴스업 못홀손가
이시더가 어느째뇨⁵⁰⁾

㉠은 전통장르 가운데 ‘극예술’의 하나였던 판소리의 상황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명시더에 완고비를 낫낫치덤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빅골선조를 빙자해서 문벌만 즈랑흐는 음덕업는 가중한 양반들’, ‘도포항의를 썰쳐넙고 두무릅을 밧짜술어 슈신제가 말만흐고 실디항실 바이업는 학자들’, ‘수호잔촌 학당에서 강미돈을 싱애삼아 늬의즈데 병드리는 학구들’을 하나씩 호명하는 방식인 이 작품은, 시사평론시가 전통장르를 어떻게 수용하여 시사평론 식으로 통합하고 있는 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은 전통장르와 새로 유행하는 음악 문화인 ‘유성기’ 노래의 향유 상황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래의 사설보다는 상황을 빌어오는 쪽이 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시사평론의 비판을 노랫말로 사설화 시키기보다 노래하는 ‘상황’을 적극 빌어오고 있는데, 전문적인 노래의 작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노래처럼 지어 독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극히 합리적인 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⁵¹⁾ ‘곡조유형’은 ‘열람유형’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평론시를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면서도 ‘한고동’, ‘또한고동’ 등과 같이 손쉽게 여러 단락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서사 단락의 역할과도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 작품도 ‘압뒤동산 록음중에 잠농흐는 녀인들이 썩을싸며 노리’하는 정황을 빌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한곡조’, ‘두곡조’의 방식으로 단락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속성은 생략하고 다만 내용상에서 ‘여자사무’, ‘여자교육’, ‘남녀평등’ 등의 여성의 문제를 주제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

5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1

51) 시(詩)와 가(歌)가 분리되는 시대적인 전환기에서 시사평론은 그 매체가 활자 매체였다는 점과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시(詩)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나, 가(歌)로서 수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서사 단락을 통해 향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행,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99.)

이다.

이 유형이 창작가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던 까닭은 각 단락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유형보다도 자유롭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래의 사설이란 여러 소절로 되어 있는바 각 단락을 각기 다른 노래의 절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곡도, 두곡도'와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사평론시를 노래로 인식시키는 이 '예술유형'은 시사평론시가 4음보를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도 일정 부분 결을 같이 한다. 이로써 시사평론은 실질적으로는 '읽는 시'였지만 노래의 사설과 그 분위기를 빌어 전통시가(詩歌)의 맥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탄식유형'이다. '탄식유형'이란 시적 화자가 선명하게 작품에 드러나 있으며 작품의 내용은 시적 화자의 심회를 읊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탄식유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탄'의 유형으로서 서사 단락에 등장한 한 인물이 단락별로 탄식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 단락의 구도아래 각 단락마다 달리 설정된 시적 화자가 각기 자신의 불평심회를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유형이다.

- ㉠ ▲ 궁벽향촌 亂리후로 두견성이 처량홀제
만단심회 절노나는 청년과부 탄식하니
구곡간장 다녹는다
- ▲ 출가흔지 몇히라도 너외정리 미혹흔디
졸디풍진 내려나서 동서분주 피란타가
랑군종적 업셔지니 심리별이 이아닌가
이설음을 엇지홀소
- ▲ 어제저녁 잠시솜에 랑군안식 디히보니
무슴일노 슈척흔고 나라근심 김헛던가
명령흔게 말흐다가 씨고보니 허스로다
이설음을 엇지할소
(중략)
- ▲ 우리집이 어더깃노 화렴중에 드럿고나
불과갓치 화증나셔 혼숨쉬고 내려나니
셔산우에 빗긴들은 내심회를 더돕는다
이설음을 엇지할소⁵²⁾
- ㉡ ▲ 만텃청산 빗긴길로 줄흐나이 느려온다

5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25

- 맑은시니 경쳐돈디 장삼버셔 남게걸고
곡갈버셔 손에들며 신세즈탄 흐는말이
- ▲ 부모의게 득죄런가 국민의게 득죄런가
늬도점도 아닌몸이 김흔산중 드러와셔
삭발위승 웬일인고 텃디간에 기물이라
중노르슬 고만두세
- ▲ 부처님의 불공흐야 무슴공덕 닥것던가
련화세계 간다흐나 신후스를 누가알며
환싱한다 흐는말은 허무적멸 이아닌가
중노르슬 고만두세⁵³⁾
- ㉔ ▲ 록음방초 경치돈디 남촌북촌 완고로인
괴약업시 셔로맛나 술스잔먹고 글스귀질제
맑은홍이 도도흐야 시국스를 즈탄한다
- ▲ 한완고가 즈탄한다
한림옥당 도흔문벌 더디청환 즈지흐야
계가성이 비난터니 반상업논 이시디에
족반거상 되엇슨즉 이스정을 엇지홀소
- ▲ 또한완고 즈탄한다
십년공부 고싱하야 풍우장중 왕리하며
시부표척 드닐닐제 장원급데 즈기터니
기혁시디 홀디디야 졸업자만 시취흔즉
이스정을 엇지홀고⁵⁴⁾

㉔과 ㉔은 '자탄'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두 작품에는 모두 '자탄'을 하는 시적 화자가 작품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㉔의 경우는 '궁벽향촌 청년과부'가 '출가한 지 얼마안되 졸디풍진 니러나셔 랑군과 집이 모두 업어지자 구곡간장이 다 녹는 듯한 심회'를 단락별로 기술한 작품인데, '두견성', '서산우에 빗긴돌' 등을 매개로 삼아 개인의 서정적 심회를 잘 드러내면서 높은 시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㉔의 작품도 이와 크게 흡사한데 '만텃청산 빗긴길로 중흐나이 느려와 맑은시니 경쳐돈디 장삼을 버셔 남게걸고 곡갈버셔 손에들며' 자신의 신세자탄을 하는 모양을 시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그 자탄의 말들을 단락별로 기술하고 있다. ㉔과 ㉔이 이처럼 한 개인의 심회를 서정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단락별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㉔의 작품은 이와는 다르게 서사 단락에서 아예 한 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락들은 그 인물들의 자탄을 대화의 방식으로 늘어놓고

5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30

5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6. 6

있다. '록음방초 경치돋디 남촌북촌 완고로인이 괴야업시 셔로맛나 술 한잔을 먹고 그 흥이 도도하야 시국스를 즈탄'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작품의 내적 정서가 한 인물의 내적심회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완고노인'이라는 '집단의 심회'로 귀결됨으로써 '자탄'의 유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 ㉡처럼 시적 화자의 심회를 작품 전체에 드러내는 유형은 본고에서 특별히 '자탄가(自歎詩)'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자탄시는 형식적인 부분의 유기성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통일성을 부여받고 있다. 시(詩)가 자아의 내면 세계를 울격 있는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이야말로 시사평론시 가운데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탄유형'은 위에 소개된 세 유형 다음으로 양적으로 우세한데, 이는 작가 역시 이러한 자탄시의 문학적 우수성을 높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탄식유형'은 주로 '~가 자탄한다. 이 설음을 어찌할꼬'의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탄유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는데, 시사평론은 이처럼 서정적인 부분까지 평론이라는 건조한 글쓰기로 흡인시킬 만큼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성격의 양식으로 탈바꿈해 나갔던 것이다.

넷째, '평론유형'은 주로 대화나 문답처럼 누구로부터 듣거나 혹은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전제하고 창작된 유형이다.

- ▲ 석양산도 저문날에 봉두돌빈 으회들이
삼삼오오 지나다가 나무지게 버셔놔코
더희씨리 모혀안져 짱을그어 글스즈쓰며
시스평론 흐느고나
- ▲ 하늘턴스즈 쓰고보니
명명흐신 상제스기셔 상선벌악 흐시는데
현인군즈 공궁호고 란신적夕 부귀하니
하늘님도 변흐섯나 우리동포 엇지살스고
- ▲ 목숨명스즈 쓰고보니
인명지턴 이라흐나 지물업시 산다홀가
지정탕갈 이판국에 구화스지 혁파호여
곤난막심 홀터인즉 우리동포 엇지살스고⁵⁵⁾

시사평론에서 사용된 '평론'이란 말은 위 작품을 고려한다면 '몇몇 사람이 모여

5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1. 25

시국형편에 대해 의논하는 모양을 두고 사용한 말인 것으로 추측된다. 시사평론란의 작가들은 위와 같이 시사평론 하는 정황 자체를 서사 단락에서 보여주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비판으로 일관할 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평론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독자에게 수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평론유형은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평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서사 단락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단락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평론유형’은 ‘수작, 문답, 말들어라, 제출, 기록’ 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 ㉠ ▲ 큰길거리 장석우혜 봉두돌빈 팔구인이
츠레업시 안쓰누어 더희씨리 슈작흐니
드를말이 허다흐다
 - ▲ 지동룽에 횡장죽은 완고량반 이아닌가
기화시터 몰낫던지 교만티도 그져잇서
갈지즈로 거러가니 그테격이 데일뵈데
 - ▲ 인력거에 권연문이 경박쇼년 이아닌가
학문스상 일호업고 주식장에 출입흐며
전고후침 양양흐니 그테격이 데일뵈데 (하략)⁵⁶⁾

- ㉡ ▲ 엄동설한 어제러니
무정세월 여류흐야 룡희삼년 되엿고나
익국스상 밋친므옴 어이흐면 도탄말가
여러친구 모혀안져 시국인물 평론홀제
이리더리 분별흐니 녀섯당과 완연흐다
 - ▲ 데일파가 누구런고 국가홍망 불계흐고
시국변천 몸미흐야 편식이나 언론흐며
즈괴문벌 즈랑타가 누가세력 잇다흐면
밤낫보고 이결홀제 쇼인이스즈 기을니니
완고당이 네로구나
 - ▲ 데이파가 누구런고 치판득실 더리치는
고금물론 상스로다 데가나면 더리붓고
예가나면 이리붓쳐 바롬물결 치는더로
시세관망 흐여가며 일신부귀 도득흐니
쇼인당이 네로구나 (하략)⁵⁷⁾

- ㉢ ▲ 눈비오는 삼경밤에 내심스를 누가알니
적적무인 홀노란져 세상스를 심각흐니
유유장탄 썬이로다

56)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31

57)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2. 4

다정홀사 더등불은 누를위히 붉엇느냐
너의빛출 잠간빌어 평론이나 지어볼가

- ▲ 너부대신 송병준은 황상폐하 순형스로
조중응과 리완용을 역적이라 대적이라
구타하며 욱혔다니 칙인즉명 이아닌가
어츠어피 갈닐바에 큰소리로 괴썸인지
그심장을 알수업다 (하략)58)

- ㉞ ▲ 월식도타 정밤중에 남북촌을 도라드니
몇몇사름 모혀안져 쓰러기와 쏙통으로
살수업다 언론할제 원망하며 탄식함을
춤아듯기 어려워라 대강기록 흐엿스니
당국자들 들어보쇼

- ▲ 흐사름이 흐논말이 위싱위싱 원슈로다
쓰러기와 쏙통모다 동리압혜 싸아두어
들며나며 더악취에 오장륙부 올라오니
위싱홀수 정말업네
일인들은 리가되나 한인이야 무슴죄고

- ▲ 쓰흐사름 흐논말이 위싱위싱 원슈로다
쓰러기를 싹터리도 그냥이나 두엇스면
빅빅치하 흐겿지만 그중에다 불티기로
넘시맛고 병이되니
일인들은 리가되나 한인이야 무슴죄고

- ▲ 쓰흐사름 흐논말이 위싱위싱 원슈로다
싹터리도 무방하고 불티여도 레스로되
전날만량 가든집을 몇천량에 프라히도
살사름이 업고보니
일인들은 리가되나 한인이야 무슴죄고 (하략)59)

- ㉞ ▲ 흐날은 빅두산령이 동희룡신을 청하야
모혀서 흐가지 문대를 데출흐되

귀관하에 오예물이 만히싸혀
내디방에 위싱스지 방해됨이 불쇼흐니
청결법을 신속히 실시하라 흐엿는디

- ▲ 헛문서를 썸여들고 늑의권리 륑탈흐는 더 오예물
- ▲ 두호흔디 칭탁하고 온통으로 습키라는 더 오예물
- ▲ 늑의물건 욱심내여 경계업시 탈취흐는 더 오예물
- ▲ 아러웃통 벌거벗고 가즘차고 왕리흐는 더 오예물 (하략)60)

58)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9. 1. 20

59)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1. 8

60)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 8

‘평론유형’은 글자를 쓰거나 서로 말로 화답하면서 시국사를 논하는 상황을 전제로하고 있다. ㉠은 ‘큰길거리 장석우혜 봉두돌빈 팔구인이 츠레업시 안꼬누어 더희씨리 슈작’하는 정황을 빌어온 것이다. ‘평론유형’은 이처럼 ‘수작’하거나 ‘문답’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나머지 단락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 모두 포함된다. 이 때 ‘탄식유형’이 ‘평론유형’과 다른 점은 ‘탄식유형’이 인물이 개인적인 심회와 처지를 토로하는 방식을 통해 비판한다면, ‘평론유형’은 시적 화자의 말을 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처지에서 오는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불평하는 소리’라는 점에서 그 둘의 차이성을 확연하게 드러난다. 위와 같은 사실은 ㉡과 ㉢의 작품에서 여실하게 보이는데 ㉡은 ‘여러친구가 모혀안져 시국인물을 평론하는’ 상황으로서 개개인의 심회를 읊고 있기보다는 ‘시국인물을 이리저리 분별’하면서 ‘완고당’과 ‘소인당’에 대해 적극적인 불만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은 ‘눈비 오는 삼경밤에 내심스를 읊는다’라고 시작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자신의 내부의 문제로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스를 싱각한다’고 하면서 ‘니각대신 송병준’, ‘조중응과 이완용’ 등 외부의 사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은 ‘쓰러기와 쏙통으로 살수업는’ 사람들이 당국에 그들의 형편을 말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이리저리 보여줌으로써 ‘당국자들이 들어줄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창작된 작품이다. ‘평론유형’은 ‘말하기’가 전제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탄식유형’과 유사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평론유형’은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는 사람을 명확히 설정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의 불평심회를 독백조로 토로하는 ‘탄식유형’과는 대별될 수 있다. ㉤은 ‘빅두산령이 동희룡신을 청혀여 모혀서 문대를 데출’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 역시 ‘청결법’이라는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해부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평론유형’은 사람들이 수작하거나 묻고 답하는 것 혹은 평론을 지어 기록하는 것 등 주로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는 평론의 상황을 빌어오고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그 ‘정황’을 서사 단락에 삽입시킴으로써 시사평론을 좀더 쉽고 친근하게 독자와 접목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는 비판의

대상이 정계 인물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차 그 인물의 주변 상황이나 각 사회에까지 두루 넓어지면서 언어나 언어의 형식마저도 그에 맞는 틀을 찾아가려는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판은 그 내용이나 시각뿐만이 아니라 그 표현 방식에 의해 더욱 탁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창작자의 의식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비유적인 표현을 주된 장치로 사용하여 단락을 연결시키고 있는 ‘비유유형’이다. 비유는 시사평론의 수사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수사법으로써 유사성의 원리가 시를 지배하고 있다.⁶¹⁾

- ㉠ ▲ 남산석벽 험준한디 왕리호는 더박쥐가
 낮에쥐요 밤에새로 번복변화 무상한디
 한국인종 비교하면 일호반덤 틀넘업시
더박쥐와 일반일세
- ▲ 황실중에 세잇스면 황실쓰라 춤신되고
 외인에게 세잇스면 외인쓰라 역적된다
 춤신역적 불계하고 일신부귀 탐을내니
더박쥐가 가중이오
- ▲ 무슴실직 잇슬때는 단발양복 호엿다가
 벼슬헌번 갈닌후에 금옥관즈 쏘붓친다
 기화하고 슈구키를 시세쓰라 변화하니
더박쥐가 가중이오 (하략)⁶²⁾

- ㉡ ▲ 각지방의 정형보면
 일병작폐 고스하고 통변자의 세상이라
 인명살해 무수하고 지산탈취 량자하니
제가비록 인형이나 돈견힝위 일반이라
- ▲ 통변들아 통변들아 학문공부 호는거슨
 세계화평 되게하고 싱민구제 호람인디
 외국말을 비웃다고 동포학디 즈심하니
네힝위가 돈견이오
- ▲ 통변들아 夕夕夕夕 일헌병과 슈비더가
 춤의병을 잡드리도 귀순토록 말홀텐디
 무죄량민 무함호야 살해키로 위쥬하니
네힝위가 돈견이오 (하략)⁶³⁾

61) 유사성의 원리가 시를 지배한다. 시행들간의 율격의 대조나 각운들의 음성적 동일성은 의미론적 유사성과 대비의 원칙을 부가한다. 반대로 산문은 필연적으로 인접성의 관계에 놓인다.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p.196.)

62)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0. 3

- ㉔ ▲ 기차고동 한번불민
 일폭강산 수천리가 번기궤치 순식간에
 눈압흐로 지나가니 더속력을 옮겨다가
사름일에 붓쳐노면 새세계가 쉽게될듯
- ▲ 기차고동 혼소리에 이강산을 열람하니
 디방풍진 지리기로 싱민어육 되엿고나
 진무방칙 실시햐야 승평세계 돈돌기를
 속히가는 기차궤치
- ▲ 기차고동 혼소리에 정부대관 놀넛스니
 위급시디 심각하고 전일습관 버린후에
 새정치를 베프러서 나라권계 회복키를
 속히가는 기차궤치 (하략)⁶⁴⁾
- ㉕ ▲ 너름날에 장마비가
 삼스일을 폭주햐야 물턴디가 되고보니
 이강산이 비와궤치 등夕써서 흔들닌다
- ▲ 지리햐다 비스소리에
 루습하고 즈욱하니 침침칠야 일반이라
 퇴명벽력 진동햐야 일턴디가 번복햐며
 습스디궤치 드리우니 청명시절 언제볼까
- ▲ 지리햐다 비스소리에
 평디물결 산과궤치 잠시간에 니러나서
 집과담이 문허지니 빅성들이 황황햐야
 구제햐기 이결햐나 누가능히 막어줄꼬 (하략)⁶⁵⁾

비유유형은 주변의 사물이나, 날씨나 계절 혹은 명절 등과 같이 보편적인 정서를 제공하는 것들에 빗대어 활용하는 유형이다. ㉔은 '낮에는 쥐로 밤에는 새로 변화하는 박쥐'를 '일신을 위해 자신의 입지를 무수히 번복하는 인물'에 대입시키고 있으며, ㉕은 '각지방에서 인명을 무수히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통변자'들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행실은 개·돼지'와 다름없다면서 '통변자'들을 '돈견'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단락들에서는 '통변들아~', '네행위가 돈견이오'라는 반복구를 사용하여 비판의 대상을 죄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이다. ㉔은 '순식간에 눈압흐로 지나가는 빠른 속력의 기차'를 '새세계가 빨리 되기를 희구하는 마음'과 연결 지어 표현한 작품이다. 당시 '기차'는 새로운 문물로서

6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10. 6

6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8. 16

65)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시사평론 1908. 7. 24

그 속도가 대중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시사평론은 이러한 참신함을 시의 정서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형식적 특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㉔과 같이 '너름날의 장마비가 지리하게 내리는 상황'을 '침침칠야에 일턴디가 잠기어 비와갓치 등등 떠다니니 언제나 청명시절을 볼까'라는 정서와 대입시킴으로써 주변의 사소한 일이라도 대중에게 보편적인 정서에 기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사평론의 표현과 양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서사 단락 기법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사 단락의 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사평론시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서사 기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 서사 단락의 활용에 주목한 이유는, 서사 단락이야말로 시사평론을 양식화하여 시사평론시로 발전하게 하는 밑받침이자 시사평론시 양식 그 자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 단락은 시사평론이 당대에 존재하는 문화현상을 시사평론란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였을 뿐만 아니라 시가(詩歌)로부터 벗어나 읽는 '시'로서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시가(詩歌)와 전혀 무관하게 시양식이 배태된 것이 아니라 서사 단락이 만들어주는 정황 속에 전통양식을 흡수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받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사평론시는 『대한매일신보』의 폐간과 함께 그 모습을 감추었지만 서사단락을 통해 시가(詩歌)와 시(詩)의 모습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던 시사평론시는 시의 발전 경로 선상에서 볼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매체화에 따른 잡가와 유사성

1) 시사평론 詩 양식화 과정의 특성

『대한매일신보』의 시사평론시는 신문의 발간과 함께 등장했다가 폐간과 동시에 사라진 양식이었다. 문학은 그 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사평론이 근거하고 있었던 매체인 신문은 그 양식을 탐색하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의 출판물은 내용 면에서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주요 노선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판물은 상업적인 이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였다.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은 출판물이 소비자인 독자층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의 국내 사정상 신문의 사상적인 면에서는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이라는 거대한 노선 아래 전국민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신문의 독자에게 판매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판된 것이라면 그 편집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고려되었을 대상은 신문의 소비자층이었다.

『대한매일신보』의 판매 부수는 당시의 기록대로라면 약 1만 부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국한문판을 합쳐서 이른 것이고 국문판의 판매 부수만 따지면 3천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우편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국문판 신문은 발행소에서 그리 멀리까지 유포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국문판 『대한매일신보』는 그 지사⁶⁶⁾가 있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신문 독자층의 일차적인 구독자는 도시나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하루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을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시사평론에 담지 된 여러 양식은 이러한 독자층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시사평론의 양식에 대한 고민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보다 흥

66) 『대한매일신보』의 지사는 각 도에 있었으나 그 발행소는 '남서석정동호외디삼충양옥집'이었다. 광고란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지사광고들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등의 큰 도시에서 올라 온 광고임을 알 수 있다. 1907년 8월 21일 '각처지사광고'를 보면 '평양, 인천싸리재, 부산항, 삼화항, 개성, 대구, 원산, 해주' 등의 지방에서 올라 온 광고를 볼 수 있다.

미 있게 꾸밈으로써 공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란은 처음부터 문예를 지향하던 지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문예화를 거쳐서 하나의 '시'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에는 기존의 어느 한 장르를 옆두에 두면서 그것으로부터의 탈장르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형식 실험의 결과 시사평론란이 새로운 하나의 시양식을 만들어 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의 측면이고 그 과정에는 매체를 사이에 두고 무수히 오고가는 독자층과 집필진 사이의 교류가 있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신문이 처음 발행되던 순간부터 폐간되는 날까지 함께 진행된 교류였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라는 매체의 상업주의적인 속성은 시사평론의 양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던 셈인데, 그 상업성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은 기득권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자기 논리를 설파해 나가는 집필진과, 도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교양을 갖춘 독자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사평론시는 정치적인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창작자와 신문이라는 매체를 소비하는 대중의 취향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시사평론란이 시양식화 된 것은 그들 취향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사평론란의 시양식화는 처음부터 시사평론이 문예적인 코너를 지향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독자층과 집필진이 살고 있던 당대의 문화적 현상 가운데 그들의 취향에도 맞고, 시사평론의 성격과도 잘 부합하는 모티브를 취사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학이라는 것만을 옆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전통 장르의 어느 하나를 그 규범으로 삼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사평론의 양식을 이루는 기본 원칙은 '변모'가 아니라 '해체'와 '통합'이라는 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장르의 통합이 문학 장르끼리의 어울림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⁶⁷⁾ 가사·민요·시조⁶⁸⁾ 등 전통시가(詩歌)의 도입뿐만 아니라, 논설·잡보·토론체 등 당대 유행한 글쓰기 방식의 활용, 신문광고·판결서·속담 등의 형식적 차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과 담론을 시사평론의 양식적 모티브로 삼고 있다.

67) 김준오, 메타성과 탈장르,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68)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이처럼 기존의 작품들을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기준 안에서 조립하는 과정 안에서 발견한 반복성이야말로 시사평론란이 만들어 낸 하나의 새로운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⁶⁹⁾

요컨대 시사평론시는 독자층과 집필진이 신문이라는 상업적인 매체를 사이에 두고 탄생한 양식이며, 이 양식의 기본 원리는 기존 장르의 해체에 의한 ‘통합’으로서 근대의 새로운 출판문화인 신문을 토대로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양식이었다.

2) 잡가와 시사평론詩 양식의 유사성

시사평론시에서 보이는 장르의 혼합 현상은 조선조 후기에 발생한 잡가에서도 발견된다. 잡가와 시사평론시는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결과 그들이 이룩해 놓은 작품 세계 또한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장르 혼합 또는 잡종은 장르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이다. 이 장르 혼합은 흔히 사회적 변화의 문학적 상관물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 제재나 가치 체계가 해체되는 시기에 장르 혼합이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 잡가는 이름 그대로 민요·가사·사설시조 등 거의 모든 시가 형식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작은 갈래에도 속하지 않는 한 작은 갈래다. 이것은 문학이 자립성을 갖지 못하고 음악에 철저하게 종속된 데 기인한다.⁷⁰⁾

잡가는 조선 후기 사회적인 제재나 가치 체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발생한 시가(詩歌)로서, 전통 시가 장르의 거의 대부분을 그 음악 속에서 용해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작은 갈래에도 속하지 않고 고유의 한 작은 갈래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르이다. 이러한 잡가의 유행은 17~19세기 방각본 이후 활자본의 보급에 따른 출판문화의 등장에 따라 일어났다. 이것은 잡가 제시 형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69) 계몽주의 시대는 사유의 힘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여러 결과물들보다 이 힘의 활동 자체에 대해 더욱 매력을 느낀다. 이 시대는 그 결과물들을 단지 즐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민음사, 1995. p.19.)

70) 김준오, 메타성과 탈장르,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장르란 제시 형식이다. 제시 형식은 문학이 독자(청중 또는 관객)에게 어떻게 향유되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제시 형식은 독자에 대한 시인의 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 서사시는 청중 앞에서 낭송되고, 소설은 인쇄되어 읽히고, 희곡은 상연되듯이 서정시는 노래로 불려진다. 향가는 노래로 불려졌지만 고려 속요는 속악정재라는 공연물의 춤과 노래, 기악 연주에 얹혀서 제시되었다. 시가가 이렇게 노래로 불리는 제시 형식은 개화기 시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⁷¹⁾

이러한 제시 형식⁷²⁾은 장르의 형성은 물론 장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가의 장르였던 잡가가 크게 유행했던 것은 출판문화의 발달에 따른 것이었다. 출판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상업적인 관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잡가집을 출판했던 출판사는 서울⁷³⁾·평양·대구에 한 둘 있었던 탓으로 잡가의 수용은 지역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잡가는 일부 특수층이 아닌 도시 시민층이라는 광범위한 수용층을 상대로 했다.

시대의 요구인 유행 가곡을 여하한 계급에서라도 如何이 해독할 수 있게 명기하였으므로.....⁷⁴⁾

즉 잡가의 전문 창작자들은 도시 시민들의 취향을 잡가 속에 반영하려 했을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1910년대의 잡가는 도시의 전문적인 가수들과 도시 시민들의 교류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작은 갈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사평론시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

71) 김준오, 위의 책.

72) 시사평론시는 서사 단락에 의해 매번 짜여지는 화행짜임의 규칙에 의해 이끌리는 특징을 갖는다.

: '고전시가는 음률이라는 제시형식에 공고히 밀착되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서정 양식, 즉 '노래하기라는 환기방식에 이끌린 서술의 억제'는 시행(詩行) 및 시행의 안과 밖에서 서술 언어의 통사적 의미구조를 차단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그 지점은 심미적 직관에 의해 발견되는 시적 긴장, 즉 '서정성'이 발현되는 곳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단 그것은 문장 차원의 진술이 아니라 화행 짜임의 규칙(양식화의 원리)로 작용할 때 서정 양식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정된다. (성무경,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서, 2000.)

73) 열 한 권이 서울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지역의 한계성을 설명해 준다.

74) 『정선조선가요집』 범례

매체는 상업성을 띄고 있는 출판물의 하나였고 이 신문의 발행소나 지사들이 평양·대구 등의 도시 주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평론시의 독자와 잡가의 향유층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잡가의 향유층은 곧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들이 염두에 둔 독자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사평론란이 자체내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실험들의 근원지가 당시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크게 유행했던 잡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⁷⁵⁾

물론 시사평론시는 순수하게 읽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양식이었던 것에 반해 잡가는 가창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 둘은 출발부터 맥을 달리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업성을 바탕으로 도시 시민들의 욕구에 관심이 지대했다는 점은 하나가 가창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르라 할지라도 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며, 이들이 일정부분에서 맞아 있을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잡가의 사설 부분⁷⁶⁾은 시사평론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진들이 잡가를 염두에 두고 시사평론을 창작하였는지 아니면 도시 시민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형식적 실험을 거치던 것이 종국에 가사의 사설과 유사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사평론시의 창작자들은 도시 시민들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생활하던 지식인이었던 바 당시 유행하던 잡가의 존재를 무시하고 시사평론시를 창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⁷⁷⁾

75) 고미숙, 20세기 초 잡가의 양식적 특질과 시대적 의미,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잡가는 20세기 초반 다양한 장르가 각축하던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양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단 하나, 대중적 흡인력뿐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에 접근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76) 잡가의 대중적 흡인력이 오직 음악적인 것으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사설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은 근대전환기 대중의 감성을 유감없이 반영하고 있다. (고미숙,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77) 고미숙, 「20세기 초 잡가의 양식적 특질과 시대적 의미」,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대한매일신보』에서 초기에 실험된 수많은 잡가형 시형식들, 잡가의 영향이 명백히 감지되는 후렴구가 달린 분절형 가사형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시계혁명(東國詩界革命)'의 주대상이 바로 잡가였다는 사실은 계몽지식인들이 잡가와 소통

더욱이 잡가나 시사평론시나 근대 계몽기라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형성되어간 양식이었고, 이러한 공통점은 상황에 의해 장르 선택이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인식의 틀이라는 내적 형식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⁷⁸⁾

시사평론시와 잡가의 유사성은 양식 형성의 배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가 사설과 비교했을 때도 공통점은 매우 많다. 기존의 연구들이 시사평론시를 가사의 하위 범주에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사와의 영향관계나 형식적 원리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잡가나 한시체 등으로부터의 영향, 혹은 전통 장르의 혼효라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사평론시가 굳이 가사라는 명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양식 형성의 배경이 유사한 잡가와 비교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미숙은 잡가의 양식적 특질을 형식의 부정형적 이탈, 전환기적 세태의 만화경, 감상의 통속적 분출, 그리고 삶의 비애로 설명한다.⁷⁹⁾

첫째, 형식의 부정형적 이탈은 잡가의 양식적 개방성⁸⁰⁾에 주목한 것으로 수많은 형식 이탈 가운데 특히 4음보 규칙성이라는 오래된 율격의 파괴를 들었는데⁸¹⁾ 이

하기 위해 보낸 가장 뚜렷한 타전의 증거로 뽑힐 수 있다.

- 78) 순간적 인식의 양식인 서정 갈래는 역사의 진행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순간의 파악만이 가능한 시대에 주류적 장르로 선택되는 데 반하여 줄거리를 통한 완결된 형식의 인식을 보이는 서사 갈래는 역사의 진행 방향이 보이고 삶의 방법이 확립된, 말하자면 비교적 안정된 시대에 선택된다. 이 때 갈래는 외적 형식보다 인식의 틀이라는 내적 형식이 문제가 된다. (김윤식,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장르의 문제점』, 『청파문학』 11집, 1973.)
- 79) 고미숙, 「20세기 초 잡가의 양식적 특질과 시대적 의미」,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를 참고할 것.
- 80) 잡가가 다양한 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문학적 형태면에서 잡박한 혼합성을 띠게 된 주요 원인은 그것이 시정 놀이판의 여러 청중들을 상대로 한 유락적 가요로 불린 데 있는데, 대중들을 상대로 한 유락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음악적, 문학적 요소들을 두루 흡수하여 그들의 흥미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시사평론시의 양식을 이루는 원리와 유사하다. 시사평론은 상업적인 출판물인 신문 독자들의 취향과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호경,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 81) 잡가에서는 규칙적인 율격 양상을 찾기 어렵다. 4음보로 된 시행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4음보격을 이루지는 않는다. (성호경,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처럼 음보를 구성하는 음절수의 가변적 성격이 의성어의 자유로운 활용과 더불어 작품에 역동적 심상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음보의 정형성 해체는 전체 구성의 유기적 연관을 해체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간다. 또한 잡가는 완결된 구조를 거부하고 항상 뒷부분을 열어두거나 엮나가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설명한다.

시사평론시의 양식적 특징 또한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잡가의 그것과 유사하다. 오히려 잡가에서는 시도되지 못한 부분, 즉 논설·광고 형식까지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잡가가 악곡임에 반해 시사평론시는 처음부터 비판을 위한 신문의 한 코너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절수의 가변적인 성격이나 의성어의 자유로운 활용 또한 시사평론시에서 보이는 특징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잡가의 사실과 유사하긴 하지만 형성된 배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음절수의 가변적인 성격이라는 의미는 정형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지만, 시사평론시는 애초에 운율을 염두에 두지 않다가 창작자에 의해 운율이 취택되어진 것이므로 형식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성어의 활용에 의해 작품 전체에 역동적인 심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잡가와 시사평론시가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의성어의 활용을 음보의 불규칙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시사평론시는 의성어가 각 단락의 유기성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반복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볼 때는 시양식으로 변해 가는 규칙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잡가의 '후렴구' 또한 시사평론시의 '반복구'와 유사해서 앞뒤에 전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에 유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상통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잡가의 이러한 형식 해체는 악곡의 특성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나 시사평론시의 경우는 애초에 음악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산문으로 일관하던 시사평론이 독자의 욕구나 정서를 수용한 결과 얻어진 양식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환기적 세대의 만화경이란 고정된 틀을 거부하는 잡가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잡가 식으로' 용해되어 버린다는 속성 때문에 생긴 '통속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의 무게에 압박당함이 없이 대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잡가는 양식의 유연성

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한말에서 근대 계몽기에 이르는 세대 풍속을 만화경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가령 「담바귀 타령」, 「범벅타령」, 「장기타령」 등과 같이 시정세태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⁸²⁾

구한말 이후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 군상과 시정풍경을 잡가의 유연한 양식 안에 담지 하고 있는 잡가와 마찬가지로 시사평론시 역시 ‘인정물태, 당시형국’ 등을 두루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상당하다. 시사평론란 자체가 당시의 인물과 세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잡가가 도시 시민들의 인물군상과 시정풍경을 담아내고 있다면, 시사평론시는 시사평론란의 목적에 충실하게 거의 대부분 정계의 인물이나 정치와 관련된 시국형편을 그리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전환기적인 세태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양식이 잡가였다면 시사평론시 역시 급변하는 시국의 세태를 비판하는데 적합한 양식으로 선택되고 다듬어졌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셋째, ‘감상의 통속적 분출, 그리고 삶의 비애’란 정감을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것이다. 잡가는 시적 포우즈나 우회적 제스처 없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은 극단적인 어휘를 수반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다. 주체할 길 없는 감정의 유동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러한 특질은 형식의 무정형적 일탈과 깊이 연루되어 잡가를 향유한 당대 대중의 고달픈 생애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⁸³⁾

시사평론시 또한 이런 면에서 잡가의 양식과 유사하다. ‘칼로 심장을 끄을러 내어’와 같은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창작자의 비판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⁸⁴⁾ 이는 근대 계몽기의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

82) 고미숙, 20세기 초 잡가의 양식적 특질과 시대적 의미,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83) 고미숙, 위의 책.

84) 시사평론시의 표현이 비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착오다. 오히려 그러한 직접적인 표현에 의한 방식은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양식의 준거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사설시조의 표현이 평시조의 표출양상과 다르다고 해서 사설시조의 위상을 폄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사평론시는 나름대로의 소통구조 안에서 향유층의 요구에 의해 생성된 양식인 것이다.

에서 무너져 버린 개인의 욕망과 뚜렷한 지향성이 없는 시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잡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언론매체의 한 지면이었던 시사평론란은 그 독자층인 도시 시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시사평론시로 하나의 작은 갈래를 형성하였다. 그 작은 갈래는 양식 특성상 잡가의 사실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당대 널리 유행되던 잡가의 향유층이 시사평론란의 독자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 상업주의적인 출판문화를 근간으로 확립되어 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잡가나 시사평론시의 양식적 특성이 근대 계몽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탄생한 역사적인 장르라는 점 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잡가는 음악의 한 갈래로서 기존의 정형화 되어있던 시가(詩歌)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사평론시는 처음부터 정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읽는 시'로서 양식을 구축해 나갔다는 면에서 그 출발은 달랐다.

IV. 시사평론 시의 문학사적 의의

시사평론시의 문학사적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사평론시는 전통장르가 어떻게 하나의 역사적인 갈래로서의 작은 양식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시사평론은 그 초기에 작품의 일부분에서만 문예적인 기법을 활용한 형식적인 모색이 나타나지만, 곧 그 양식적인 탄력성을 바탕으로 전통장르는 물론이고 당대에 유행하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수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하게 된다. 시사평론은 1907년에서 19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작은 갈래가 어떻게 만들어져가고 또 변해가고 소멸해 가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둘째, 시사평론시는 근대 계몽기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어떤 양식과 혼합시켜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결합의 양상 즉 계몽기적인 변용을 보여준다. 당시 크게 유행하던 장르는 잡가였는데 그 양식적 특성이 시사평론시의 그것과 크게 맞닿아 있다는 것은 시사평론시의 양식 특징이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느 한 가지 정형을 고집하지 않고 당대의 시가를 모조리 자유롭게 통합하고 해체하는 방식이야말로 그 시대의 혼란과 급박함을 담아내는 양식으로 적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시사평론은 비판을 통해 그들의 입지와 논리를 공감하게 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당대에 유행하거나 관습화되어 익숙해져버린 표현이나 형식들을 차용하는 것이야말로 유용한 것이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일정시기에 형성되었다가 사라진 장르는 그 양식을 향유했던 이들의 세계관이나 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시사평론시는 시가(詩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적 읽는 시(詩)로 바뀌어나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시가가 근대시로 이행해 나가는 경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사평론시는 정형시 혹은 전통장르의 어느 하나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사평론란이 점차 문예적인 성격을 띄게 되면서 오히려 읽는 시로서의 완성을 가져온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가의 음악적인 부분을 완전히 떼어 낸 것이 아니라 그 정황 등을 서사 단락에 삽입시킴으로써 읽기는 읽되 독자는 노래하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시사평론시는 노래와 글을 형식이라는 구

도에 용해하여 접목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본고는 지금까지 '계몽가사' 등으로 불리우던 작품 800여편을 더 이상 '가사'의 하위 장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사평론시'라는 개별 양식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그 동안 '가사'의 변모라는 시각 때문에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식적 원리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내지 못하였던 시사평론시의 양식적 원리를 첨예하게 파고들어 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시사평론시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발표지면의 성격을 크게 고려하여 시사평론란 안에서 시사평론의 작품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그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해 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시사평론시는 시사평론 가운데 일부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사평론란이 처음부터 문예적인 지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사평론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서만 시사평론시의 고유한 양식적 특질과 원리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적 원리들을 분별해 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준거는 바로 언론매체와 시사평론의 소통구조의 내적측면을 기술했을 때 더욱 적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계몽'이라는 추상적인 용어에서 벗어나 '도시 시민층' 그 가운데서도 '사회지배계층인 정계관련인물'이 바로 시사평론의 실제 독자라고 했을 때 작품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문면으로 파악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노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시사평론이 '통합'하고 '해체'하는 당대의 장르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시사평론의 양식적인 원리를 '통합'과 '해체'를 통한 '매체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191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잡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사평론시는 '가사'의 변형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잡가'와 같은 양식적 원리를 가진 '역사적인 작은 갈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특정 언론매체의 발생과 함께 탄생했다가 폐간과 동기에 사라진 양식이었다는 점에서도 시사평론은 역사적인 작은 갈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작은 갈래였던 시사평론은 여러 가지 형식적인 틀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서사 단락 활용'은 시사평론시의 양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사 단락'을 통해 시사평론시는 전통장르를 수용하고, 또 문학성이 우수한 작품들을 대거 생산해 내고 있는데 한 마디로 '서사 단락'은 시사평론란의 여러 형식적인 실험들 가운데 독자와 집필진이 서로의 구미에 맞게 적절히 변용된 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평론시는 '서사 단락'을 통해 '노래하는' 시의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읽는' 시로서 창작된 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근대시의 이행 경로를 이해하는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시사평론란 전체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시사평론시의 생성과 변이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단계를 차근차근 보여줌으로써 양식의 내적 측면을 드러내는데 치중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이나 기타 다른 신문의 작품들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1. 자 료

-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관훈클럽, 1984.
김근수, 『한국개화기시가집』, 태학사, 1985.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3, 박이정, 1996.
신범순, 『한국근대문학연구자료집』, 신문사, 1987.
정재호 편, 『한국잡가전집』, 계명문화사, 1984.
조남현, 『개화가사』, 형설출판사, 1982.
통계청,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 일지사, 1994.

2. 단행본

-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국어국문학회, 『가사 연구』, 태학사, 1998.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화기 시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대행,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99.
김민환, 『개화기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1995.
김성배·박노춘·이상보·정익섭 편저, 『주해 가사문학전집』, 민속원, 1997.
김영철, 『한국개화기시가의 장르연구』, 학문사, 198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90.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 김태준, 『조선소설사』, 도서출판 예문, 1989.
-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
-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한국문학과 계몽 담론』, 새미, 1999.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 강좌』 상, 창작과비평사, 2000.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14, 소명출판, 1999.
- 민족문학사연구소,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2000.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 박영재·박충석·김용덕, 『19세기 일본의 근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 성기욱, 『한국시가울격의 이론』, 새문사, 1999.
- 성무경,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사, 2000.
- 성호경,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 신동욱,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94.
-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5, 사계절, 1999.
-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0.
- 윤병준, 『한국근·현대문학사』, 명문당, 2000.
- 이민자,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사상 연구』, 집문당, 1989.
-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1997.
- 이현희, 『우리나라 근대인물사』, 새문사, 1994.
- 임형택,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 정재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조동일,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최원식·백영서,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7.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3. 연구 논문

- 강은해, 「개화기가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고미숙, 「계몽가사 형성에 있어서 한시와 국문시가의 전통 연구」, 고전문학·한문학 연합 심포지움 발표문
- 고미숙, 「한국 근대계몽기 시가의 이념과 형식」, 『한·중문학의 전통과 근대』, 제 30회 동양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중국현대문학학회, 1997.
- 고은지, 「애국계몽기 시조의 창작배경과 문학적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구자균, 「한말 우국경시가에 대하여」, 『문리논총』 4,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59.
- 권영민, 「개화-계몽시대의 서사양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예중앙』, 중앙일보사, 1996, 가을.
- 김윤식,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장르의 문제점」, 『청파문학』 11집, 1973.
- 김준오, 「개화기시가 장르비평의 연구」, 『국어국문학』 22, 부산대, 1984.
- 노미원, 「1910년대 유행한 잡가의 한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1985.
-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 비평』, 1993.
- 신범순, 「애국계몽기 '시사평론' 가사의 형성과 정치적 위기의식의 문학화」, 『국어국문학』 97, 1987.
- 예창해, 「개화기시가와 율격의식」,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 1984.
- 이노형, 「잡가의 유형과 그 담당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87.
- 이노형, 「한국 근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 이윤상, 「한국근대사에서 개항의 역사적 의의」, 『역사와 현실』 9, 한국역사연구회, 1993.
- 장성민,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세계의 문학』 4, 민음사, 1997, 여름.
- 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의식」,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1.
- 정영곤, 「개화기 문학사상의 형성과정-조선후기이후 사회계층의 문학사적 역할」, 『국어국문학』 28, 부산대학교, 1991.
- 정선태, 「계몽의 담론-개화기 문화적 서사 담론의 정치적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시론」, 『외국문학』 47, 열음사, 1996.
- 정재호, 「잡가고」, 『민족문화연구』 6, 1972.
- 정한모, 「개화기시가의 제문제-그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전망」, 『한국학보』 6, 일지사, 1977, 봄.

- 조남현, 「사회등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 조동일, 「개화기가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 4,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0.
- 조동일, 「개화기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 조동일, 「개화구국기의 애국시가」,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76.

外 國 文 獻

-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9.
- 다이안 맥도넬,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한울, 1992.
- 로만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1989.
- 로저 스크러턴, 『칸트』, 김성호 역, 시공사, 1999.
-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신진경 역, 거름, 1998.
-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역, 민음사, 1995.
- G.W. 길모어, 『서울풍물지』,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 J.G. 메르키오르, 『푸코』, 이종인 역, 시공사, 1999.

國文抄錄

I 장 서론에서는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작품 800여 편이 선행연구에서는 ‘계몽가사’ 혹은 ‘개화가사’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연 그와 같은 명명이 작품의 고유한 양식적 원리를 드러내는 데 적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사평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II장과 III장을 달리하여 논하고 있다.

II장은 ‘계몽’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논의로 소통구조에 따른 창작의 주체와 독자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시사평론란이 그 소통구조의 내적 측면에서 볼 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비판의 대상과 내용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데 즉 시사평론의 비판의 대상은 『대한매일신보』 1면과 2면의 기사에 주로 오르내리는 정계 인물과 그들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 독자층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정치에 대하여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은 시사평론의 독자층이 결국 시사평론의 비판의 대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사평론은 신문 집필진과 정치적인 논리와 입지를 달리하는 당국자에게 시국형편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계몽이라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큰 개념으로 작품의 성격을 한정짓는데 무리가 따르는 이유로 설명하였다.

III장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시사평론과 시사평론詩의 형식적 특성과 그 의미인데, 시사평론의 고유한 양식적 원리를 첨예하게 파악하여, 시사평론시가 전통시가인 가사의 하위장르로는 분류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III-1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시사평론란이 신문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시사평론 전 작품을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모색기는 주관적인 집필진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던 지면이 그 단조로움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하여 차차 여러 가지 형식적인 장치를 끌어들이며 적절한 양식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기인데 이 때 발견된 중요한 형식적인 장치는 ‘반복구’와 ‘서사(序詞) 기법’이었다.

실험기Ⅰ, 즉 문예 기법 도입기는 반복구와 서사 기법으로 탄력을 얻은 형식적인 실험이 한층 가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주로 문예적인 표현이나 기법을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시사평론은 높은 문학적인 성취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판의 내용이나 대상이 그 형식에 구속되리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던 시기다. 실험기Ⅰ에서는 특히 전통시가와의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사 단락 활용기, 즉 안정기는 시사평론시 양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사 단락을 적극 활용하여 시사평론시를 창작하던 시기로서, 다양한 서사 기법들을 실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실험기Ⅰ의 과정에서 이미 작가나 독자가 만족할만한 양식적인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별다른 시도 없이 서사 단락의 활용이라는 하나의 양식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창작이 진행되는 시기를 일컫는다.

실험기Ⅱ, 즉 신문 지면 활용기는 매너리즘 극복을 위해 마련된 서사 기법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매너리즘이 되자 그 탈출구를 신문 지면의 글쓰기 방법에서 찾고 있는 시기이다. 여전히 서사 단락을 활용한 형식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대에 유행하는 신문의 지면이나 문화 현상들을 활용하여 시사평론의 성격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식은 시사평론의 양식적 원리와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현상이다. 시사평론의 양식적 원리인 통합하고 해체하는 ‘매체화’의 과정은 이 시기를 통해 특징적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쇠퇴기는 시사평론란의 분량이 짧아져서 ‘시사단평’으로 지면의 이름이 바뀐다. 형식의 구속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문학적으로는 성취도가 높아졌지만, 반대로 매일 발간되던 신문에서 항상 새로운 틀을 기대하는 독자의 요구를 작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국권침탈이 극에 이르자 비판을 통해 새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집필진들의 목소리는 단지 ‘구호화’ 될 뿐이었고 이것이 시사평론의 본래 목적과 잘 들어맞지 않게 되자 시사평론란은 본래의 지면 성격을 잃어감으로써 점차 그 활력을 잃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Ⅲ-2인 시사평론시의 형식적 특성과 작품의 유형분류에서는 시사평론시 양식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사 단락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서사 단락의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열람유형, 예술유형, 탄식유형, 평론유형, 비유유형이 그것이다. 각각의 유형은 시사평론시의 단락을 이

어가는데 유용한 것들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식유형에 속하는 자탄시는 작품성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평가된다.

Ⅲ-3의 매체화에 따른 잡가와 유사성에서는 시사평론의 양식을 이루는 원리가 잡가의 원리와 유사함을 설명하고 있다. 잡가는 시사평론이 창작되는 바로 그 시기에 출판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도시 시민들을 담당층으로 하여 크게 유행하였는데, 신문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출판물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문의 독자층이었던 도시 시민들의 취향을 한껏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또한 잡가의 사설과 시사평론시는 그 양식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서, 시사평론시가 전통장르의 하나인 가사의 하위 장르가 아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Ⅳ장에서는 시사평론시의 문학사적 의미를 세 가지로 들어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시사평론시는 전통장르가 어떻게 하나의 역사적인 갈래로서의 작은 양식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둘째 시사평론시는 근대 계몽기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어떤 양식과 혼합시켜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결합의 양상 즉 계몽기적인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시사평론시는 시가(詩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적 읽는 시(詩)로 바뀌게 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시가가 근대시로 이행하는 경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ABSTRACT>

The Study of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Si-sa-pyung-non-si*) in The Korea Daily News

Sohn, Yuk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Korea Daily News (Korean edition, 1905~1910) had comment column on current topics. In the previous studies, some works which had strict rhythm in that column were called 'Gaehwa Gasa'(개화가사) or 'Keimong Gasa'(계몽가사), but in this study all works that had organic structure between paragraphs will be called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시사평론시) including 'Gaehwa Gasa' The reasons why they are called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are referring to the following statement.

First, chapter II explains about special characters of comment column on current topics. In view of mutual relations based on newspaper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comment column on current topics has strong impression of political charact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at comment column on current topics is explained to 'Gaehwa'(개화) or 'Keimong'(계몽)

Second, chapter III is stated of the character of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and formal principle. '*Comment column on current topics*'(시사평론란) imported various techniques for overcoming mannerism which was came from direct emotional criticism. In that procedure, that columns used dis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of many cultural phenomena like 'the traditional

poems and songs' and the way of writing on the newspaper. It is quite similar to principle of formation of 'Japga Saseol'(잡가사설).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formal principles is the use of '*prefatory paragraph*' (seosa-dallak, 서사 단락).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ensured the rhythm and lyricism, is classified several types like 'lamentation', 'perusal', 'art', 'commentation', and 'metaphor'.

In conclusion,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is the genre that was produced with foundation of press media and extincted with discontinuance. Although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is a 'reading poetry', that is worthy of understanding transfer process to the modern poetry in fact of accepting traditional poems and songs to prefatory paragraph.